

<b>메르스 환자현황</b> 6월 15일 11시 기준	
확진환자	150명
사망	16명
감염의심자	5,897명
격리	5,216명
격리해제	3,122명
완치	14명

# 대구광역시 일보

대구 20~26℃ 포항 20~23℃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3008호 단기 4348(연료 5월 1일)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 가뭄...농심도 대지도 바짝 말랐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가운데 15일 양구군 남면 황강리의 주민이 말라 죽어가는 콩을 바라보고 있다.

## 김관용 경북지사 너무 바쁘다 바빠

메르스 공포 차단하라  
우박 가뭄현장 찾느라  
밭이 다 불어 틀 지경

김관용 경북지사가 연일 강행군이다. 메르스 광풍 넘어 우박 가뭄까지 덮치자 민생행보에 밭이 다 불어 틀 지경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5일 오후 영주시 소재 우박 피해농가 및 가뭄현장을 확인하고 우박 피해 복구와 가뭄극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우박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했다.

김 지사는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일원 가뭄 현장에서 가뭄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을 직접 챙겼다.

도내에는 지난 13일 오후 안동시 등 3개 시·군에 우박이 내려, 과수와 고추 등 75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42ha, 영주시 705ha, 상주시 10ha 등이다.

작물별로는 사과 400ha, 복숭아 100ha, 포도 24ha 등 과수가 대부분이고, 고추, 참깨 등 밭작물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며, 과수와 채소류는 잎이 파열되고 열매가 상처를 입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15일 오후 영주시 우박 피해농가 및 가뭄현장을 확인하고 우박피해 복구와 가뭄극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를 입었다.

도내에는 5월부터 시작된 강수 부족으로 안동시 등 7개 시·군에 총 463ha의 논과 밭에서는 물마름과 농작물 시들음이 발생해 농업용수가 4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공무원과 농업인 3013명, 양수기, 관정 등 양수장비 4311대를 동원해 물대기 등 가뭄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성용 기자

## 《광풍》 狂風 메르스... 경북 뚫고 대구마저 삼켰다

### 경북은 교사 대구=공무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대구에서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나와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가 이상 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구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A씨의 가검물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A씨가 2차 검사에서 양성을 반응 보일 경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한 가족의 병문안을 다녀 온 뒤 이상증세를 보이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

려졌다.

또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갖기도 하는 등 여러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 돼 '대구지역에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건당국과 함께 A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 오늘의 Hot

### 골프여제 박인비 LPGA역사 새로 썼다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우승상금 63만달러) 3연패에 성공하면서 솔한 기록들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박인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파73·6670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최종합계 19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과 2014년 이 대회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박인비는 단일 메이저대회 3년 연속 정상 등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008년 US여자오픈 최연소 우승과 2013년 3개 메이저대회(크래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웨그먼스LPGA챔피언십·US여자오픈) 트로피 사냥에 이은 또 하나의 업적이다.

같은 메이저대회에서 3년 연속 트로피를 사수한 것은 앞서 단 2명만이 달성했던 대기록이다.

패티 버그(미국)가 1937년~1939년 타이틀 홀더스 챔피언십을 통해 첫 번째 주인공이 됐

고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3년~2005년 LPGA 챔피언십 우승을 경험했다.

박인비는 10년 만에 선배들의 뒤를 이었다. 한국인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기록도 박인비의 차지가 됐다. 박인비는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메이저대회 우승을 6번이나 경험하며 지금의 '골프 한류'를 만든 박세리(38·메이저 5승 포함 통산25승)를 넘어섰다.

통산 15승 중 6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챙기며 큰 경기에 강한 면모 또한 이어갔다.

세계랭킹 1위 자리는 20주 만에 되찾았다. 세계랭킹 포인트에서 리디아 고(18·한국명 고보경)에게 0.1점 뒤진 2위를 달리던 박인비(평균 10.67점)는 이번 우승으로 1위 탈환에 성공했다. 리디아 고는 컷탈락으로 랭킹 포인트를 챙기지 못해 선배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 밖에 박인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첫 3승 등극, 상금랭킹 1위 도약 등의 짝짱한 부수입까지 챙겼다.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 또한 그의 차지가 됐다.

뉴스

## 버스준공영제, 대구살림 값아 먹는다

### 퍼주기 예산...혈세 수십억 탕진 버스업체 지원금 제멋대로 평평 대구시 관리감독 사각지대 전락

대구시내버스 지원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버스업체 등에서 경비를 집행하면서 세금 계산서 등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했다.

퇴직급여를 당기에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을 적기에 수행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운영했다.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는 표준지원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납부한 보험료 보다 과다하게 지원했다.

연료비도 제멋대로 사용했다.

연료비는 표준지원방법이 적정한데도 기존 표준지원 방법을 실제지원방식으로 변경, 차

고지 외곽지 이전 등으로 발생한 공차운행 연료비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했다.

결국 연료비 지원을 증가되게 하는 결과로 초래했다.

운송수입금 관리분야도 주먹구구식이다.

보조금 성격의 고평가 고용지원금을 버스업체 자체수입으로 귀속한 사항,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의 업체협의회 경비집행 승인처리 관련 사항, 회차지 사용료 및 업체협의회 운영비 집행부적정 관련 사항 등 총 12건이나 됐다.

이 사실은 대구시 감사관실이 준공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30~4월17까지 벌인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에서 확인됐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에서 2013~2014년에 업체들이 식대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며 적법한 지출증빙서류(3만원이하 제외)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경우는 모두 2442건에 금액은 8억2000여

만원에 이르렀다.

2012~2014년 일부 업체들은 운전기사 목욕대금 3300만원, 신문대금 3억2000여만원, 장갑대금 1800만원 등을 ' 시내버스 노조 대구 지부' 명의 영수증 등으로 침부해 보관했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 등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는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는 실비로 정산토록 했으나 2007~2014년 버스업체들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탓에 시 예산 61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업체들은 2012~201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평가 고용지원금 2억2600만원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수입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재정지원금 절감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의 버스업체 등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박영덕 기자

## 제2회 예천 세계 활축제

Yecheon World Archery Festival, 2015

기간: 2015. 10. 15. 목 ~ 18. 일 / 4일간

장소: 예천 한천체육공원, 남산공원

# 대구 시정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2



**정태욱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리는 '통일기원 국악한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윤순연 중구청장**은 16일 오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16일 오전 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오후 매호동 일원에서 열리는 우리동네 협동조합 개소식에 참석, 조합원들을 격려한다.

##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의장

### 내년총선 대구수성갑 출마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공식화로 전국적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대구 수성갑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항하는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말 예정인 대구수성갑 당원협의 회위원장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총선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작금의 현실은 중앙정치 무대를 향한 디딤돌로 여기고 지역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치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지역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전략공천지로 거론되고 있고, 야당 유력후보(김부겸) 역시 지역을 불모삼아 중앙정치 무대로 복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내년 총선은 과거의 중앙정치 주도 행태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지역주도형 생활정치로 새롭게 태어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38년 수성구 토박이이자 말머느리로 대구 수성구의 생활정치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비례)도 지난 12일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 및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성용 기자

## 신천·금호강 야생동물보호

### 야생동물연합회, 보호활동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18일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신천에서의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한다.

시는 불법 포획을 예방하기 불법포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수달, 조류, 양서류 등 모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행위이다.

낚시금지 구역인 신천(가창 우육-침산교)에서의 낚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에 신천 및 금호강 등 불법포획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 및 단속하고, 낚시꾼 등 야생동물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도 한다. 수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개 등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수달보호 홍보활동도 펼친다. 김영식 기자

## 대구 도심공원 공기 '최고'

산책·운동 오전8시-오후2시

시간대 피하는 게 가장 좋아

대구 주요 도심공원의 공기질이 양호, 시민들에게 쾌적한 힐링(healing)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5월 시민들의 휴식장소인 대구수목원, 두류공원, 신천둔치, 대구스타디움 4곳의 도심공원에 대해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

과,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이하를 보여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도로변과는 달리 녹지가 많은 이들 공원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도로변보다 13%와 50%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공원의 시간대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하루 중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난 오전 8시 전후에 다소 높아지다가 차량의 통행량이 줄어든 오후 2시 전후에 다시 낮아지



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호흡기, 심장 혹은 폐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산책이나 운동

을 할 때는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높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공항, 동경 하늘길 드디어 열렸다!

## 대구-나리타 노선 확정 네 번째 일본 수도 취항

지난 3월 16년 만에 부활한 일본 제2관문 오사카 직항노선 운항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제1관문 공항인 수도 동경 나리타에도 대구 직항노선이 취항하게 됐다.

대구공항은 명실공히 국내 공항 중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일본의 제1·2관문 공항을 동시에 취항하는 지방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게됐다.

대구-나리타 노선 확정으로 공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대구-오사카 노선이 운항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번에는 일본 수도 동경 나리타공항에 대구 직항노선이 취항하게 됐다.

나리타공항은 시설 및 규모 면에서 일본 내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기타



대륙 등을 이어 주는 명실상부한 일본 제1관문 허브공항이다.

대구와 일본 수도 간 직항노선 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눈여겨 볼 것은 대구공항에 이미 취항 중인 열도 서편 오사카와 동편 수도 동경 나리타 간 약 400여

킬로미터 구간은 나고야 등 일본 유수 도시들이 산재해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신칸센 등 육상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앞으로 대구와 양대 도시를 축으로 하는 항공수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 이용 확대에 따른 투자 및 기업교류 활성화,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본 여행 편의 제공, 일본인 관광객 유치 등 여러 방면에서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취항으로 대구공항은 첫째, 일본 수도 나리타 직항 노선 연결 둘째, 일본 제1·2관문 공항인 나리타와 오사카를 동시에 취항하는 공항으로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국내 공항 중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오랜 기간 집계에 있었던 대구공항이 작년년부터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며 변모해감으로써 국내 공항 가운데 그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는 일본 수도 동경을 가려면 인천이나 김해까지 가지 않아도 돼 연간 수백억 원대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그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며, 메르스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항공·관광 수요를 늘리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 본격 시동

### 내일 수도권·경남지역 30여기업초청 특별분양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대구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1차 특별분양을 겨냥 수도권, 경남지역 등 역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기업설명회는 오는 8월 특별분양을 위한 1차 10여개 중견 우수 물기업 유치를 목표로 수도권, 경남권 등 전국 30여개 기업을 초청한다. 물산업 클러스터의 특별분양 일정, 대구시 기업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특별분양은 역외 우수기업을 유치 목적으로 48.1만㎡(15만 평) 규모의 기업집적단지에서 단지 성공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처리설비, 상·하수도관, 펌프·밸브, 자동제어기기 등 국내 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위주로 초청한다.

향후 입주기업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참석기업을 보면, 멤브레인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국내 매출액과 기술력이 가장 높은 PVC 수도관 중견 최우수기업, 펌프와 밸브를 제조하는 강소기업, 하수처리기업 등 전반적으로 물 관련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멤브레인(membrane)은 수처리의 오염성분을 분리하는 고성능 필터(최신기술)를 말한다.

대구시는 1차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2차례 일반분양 및 1차례 특별분양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부지는 향후 추가적인 선도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 기업유치 전략으로 접근한다.

김영창 경제부시장은 "대구 물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는 큰 비전 아래, 앞으로 물기업은 대구에 올 수 밖에 없도록 모든 물산업 인프라를 갖춘 단지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문·평화시장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인기가 좋은 전통시장 선정

대구 서문시장과 평화시장 닭요리전문골목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5년 외국인이 인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외국인이 인기 좋은 전통시장'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 관광공사 협력지사의 추천을 받은 총 35곳 시장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 즐길거리,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 관광매력도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가 선정됐다.

이들 선정된 시장의 외래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상품화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제공(외래객 1인·온누리 상품권 5000원권), 국내외 설명회 및 팸투어 실시 등을 통한 상품 홍보, 상품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추진한다.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 2014년까지 7개 전통시장을 상품화해 외국인을 총 12만6000여 명을 모객(모집고객 줄임말)했다. 지우현 기자

올해에는 16개 시장을 선정, 외래객 6만 명 모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문시장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돼 야시장, 상설공연장 등 외국인을 위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 중이다.

서문시장은 관광공사로부터는 '외국인이 인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뽑혀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시장 관광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외국관광객 대구방문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평화시장 닭요리 전문골목·치맥로드(일명, 닭뎡시 골목)'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15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12년에 선정된 '안지람골목거리'와 함께 대구 관광의 먹거리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진 대구시 관광과장은 "이번 한국관광공사의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도 한몫 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린다"



### 26일까지 롯데멤버스회원 대구의 멋과 맛 찾아 방문

대구시는 롯데JTB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프로모션 관광객 천명을 유치했다.

대구시는 외래 관광객 천만 달성을 위한 꾸준한 대구 관광 홍보와 마케팅 노력의 결과로 롯데JTB가 롯데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 행사인 '만원의 행복' 단체여행 상품을 유치했다.

롯데멤버스 회원들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수, 목, 금, 토, 일요일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

100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한다.

2012년에 이어 '2015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구근대골목'과 팔공산 정기가 서린 천년고찰 '동화사', 고백에 깃든 반가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웃골마을', 넉넉하고 구수한 인심이 넘쳐나는 큰 장터 '서문시장' 등 대구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한다. 투어에는 대구에 대한 깊이를 이해와 감동을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대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도 제공된다.

기업 프로모션 단체관광객의 유치는 메르스로 인해 요주거 등 지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단절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불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유희 기자

## 북구청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 청사에 대형 태극기 부착

북구청이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과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8월 15일까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구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구 청사 외벽에 12m×8m (96㎡) 규모의 대형 태극기를 부착하였고, 청사 화단에 바람개비 태극기 조형물 100여 개를 설치했다.

구청 민원실 내에는 태극기 나무 조형물을 만들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북구 태극기 사랑 T/F 팀'을 구성,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국기꽃이대 설치할 계획이다.

태극기 게양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와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국기 게양 모범파트 단지 등 거리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친다. 구 누리집에 태극기 배너를 설치, 구청 관용



차량에는 반드시 차량용 태극기를 달고 운행하도록 한다. 관내 각종 기관·단체 및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추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4

광고문의·기사제보

053)253-0000



##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성공' 기간동안 4만명 이상 다녀가

대구시는 제14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에 4만여명이 찾는 등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제15회 대구국제식품전(DAFOOD)을 겸한 제14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는 지난 11-14일 북구 산격동의 엑스코(EXCO)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동안 총 4만여명이 다녀갔다. 특히 대구와 호남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중소기업 일대일 구매 및 수출상담회'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

18개 지역 중소기업체가 참가한 이번 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상담은 295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8건이 납품계약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제15회 대구국제식품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남의 10개 업체가 참여,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과 특산물 등을 선보였다.

또 국제식품전에서는 영양사 및 외식업체 업주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의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식품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음식관광박람회와 국제식품전이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 사건·사고

### 안동서 청각장애 고교생 열흘째 실종, 경찰 공개수사



안동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안동시 당북동 인근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김선빈(18)군이 실종돼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12분께 안동시 당북동 안동우체국 앞의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지만 이후 행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의 아버지는 김군이 집에 오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보청기가 없으면 전혀 듣지 못할 정도로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데다, 1급 정신지체 장애까지 중복 장애를 앓고 있다. 김군을 목격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

## 오는 9월부터 대구-나리타 직항노선 개설

지난 3월, 16년 만에 부활한 일본 제2관문 오사카 직항노선 운항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일본의 제1관문 공항인 수도 동경 나리타에도 대구 직항노선이 취항하게 된다.

이로써 대구공항은 국내 공항 중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일본의 제1·2관문 공항을 동시에 취항하는 지방공항으로 자리매김하며, 공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일본 수도 간 직항노선 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대구공항에 이미 취항 중인 열도 서편 오사카와 동편 수도 동경 나리타 간 약 400여km 구간은 나고야 등 일본 유수 도시들이 산재해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신칸센 등 육상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대구와 양대 도시를 축으로 하는 항공수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 이용 확대에 따른 투자 및 기업교류 활성화,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본 여행 편의 제공, 일본인 관광객 유치 등 여러 방면에서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덕 기자

# 메르스 뚫린 대구 여전히 '무감각'

## 시장·대형마트·극장 사람들 복직 환자 급감한 대형병원만 죽을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청정지역이었던 경북에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 대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대구 시민은 여전히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시·군의 주요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 일대의 시장, 대형마트, 극장가 등에서 주말 내내 수많은 시민들로 넘쳐났다.

지난 13일 오후 4시 39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메가박스에는 최근 개봉된 영화를 보고자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표를 예매한 사람들은 극장에 마련된 벤치나 인근 커피숍에서 상영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영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 1층 로비 등에서 진행 중인 아울렛 할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다. 가족들을 동반한 일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구 일대의 대형할인마트, 시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다.

이날 오후 6시 21분께 대구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장을 보려는 사람들과 칼국수 등을 먹고자 모인 사람들로 복잡했다. 하지만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서문시장 4지구, 서문시장 수선골목, 동산상가들을 확인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칼국수로 유명한 서문시장 4지구 내 음식점 등에서도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였다.

14일 오전 11시 49분께 대구 칠성동의 홈플러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과 손세정제 등을 비치한 매장은 간간히 눈에 띄었을 뿐 찾기가 힘들었다. 일부 매장 직원들만 입 가리개 등을 착용했을 뿐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구 일대의 대형병원들은 메르스 여파로 울상을 짓고 있다. 메르스 감염이 병원으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꺼리는 것이 이유였다.

15일 오전 10시 3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영남대병원에는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고 본관 정문으로만 사람들을 입장시켰다.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 정문 앞에 마련된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함과 동시에 병원관계자들이 방문객들의 체온을 재고 있었다. 병원은 한적한 손님들로 빈자리가 수도룩했다. 평소라면 자리가 없어 서있는 사람들이 많은 대학병원 특성상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사람들은 넓은 공간에 다리까지 올리는 등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등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중구 삼덕동의 경북대병원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똑같았다. 정문 출입구만을 개방해 방문객들을 입장시켰으며 방문객들은 병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신상정보를 작성해야 했다. 또 손소독과 함께 병원관계자들이 방문객들의 체온을 재고 있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평상시 출입부터 가득했던 방문객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 병원 안에 마련된 식당에도 찾는 사람들이 없어 대부분 빈자리만 가득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가 클 줄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이번 메르스 여파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 일대의 모든 병원은 이번 메르스 여파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몸이 아픈 환자들은 더 이상 병을 키우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에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계명대 동산병원 '열감지 화상카메라' 설치

### 직원들 메르스 차단에 앞장

계명대 동산병원이 메르스 유입방지와 사전 차단에 열감지 화상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다.

동산병원은 14일부터 입원병동 입구와 외래병동 입구에 열감지 화상카메라를 각각 설치해 발열 의심자 확인을 위한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열감지 화상카메라는 접촉없이 발열 확인이 가능하여 내원객들이 측정에 따른 거부감이나 불쾌감,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고가의 장비이지만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메르스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동산병원은 교직원들이 출입구마다 배치돼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관련 문진, 손세정, 발열확인, 타병원 경우 여부를 확인하며 메르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6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대구 유일하게 활동하게 된다.

지우현 기자

## '포괄간호서비스' 간병문화 바꾼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체계적 간병시스템, 비용·혜택 모두 '만족'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한다.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 생활이 가능하다.

단 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산이 불가피해 2015-2017년까지 지

방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대구의료원 등 전국 31개 병원이며, 올해 말까지 100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www.hi.nhis.or.kr)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포괄간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봐서도 우리나라의 걸지레적인 간병문화가 시급히 바뀌어야 할 때임을 알게 된다"며 "포괄간호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의 간병제도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기자

## 생명사랑 서포터즈꽃바지팀, 올바른 '성 인식' 알리

### 동성로서 '청춘을 즐겨라' 성 인식 길거리 이벤트 펼쳐

대구·경북 생명사랑 서포터즈 '꽃바지(꽃다운 우리들의 바람직한 성지식)' 팀이 최근 잘못된 성문화에 취약한 동성로 클럽 골목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알리기 위한 '청춘을 즐겨라' 길거리 이벤트를 펼쳤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운영되는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과 인공임신중절예방 등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탄생했다.

'꽃바지' 팀은 팀장 김명홍(3년·남), 김병석(2년·남), 양유진(3년·여), 우현희(3년·여), 조우철(2년·남), 최영신(3년·여) 등 총 6명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구·경북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청춘을 즐겨라' 이벤트는 잘못된 성문화에 취약한 동성로 클럽 골목을 방문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이벤트 진행을 위한 3시간여 동안의 사전 준비에 이어 자정 넘어서까지 성 지식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물품(야광 팔찌, 자제제작 해나) 지급, 서포터즈 홍보 등이 이어졌다. 꽃바지는 클럽 골목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홍보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명홍 팀장은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스며들게끔 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더욱 우리의 취지를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 올바른 성 인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꽃바지'는 지난 4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이월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길거리 캠페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각종 추천 이벤트, UCC 등을 온라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포항 불빛 축제 등에서 길거리 홍보, 공익광고 홍보, 생명사랑방문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 실종된 40대 남성 연못서 시신으로 발견

17개월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얇아진 연못에서 숨진 채 자신의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연경동 연경지에서 승용차량의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을 낚

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안에서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김모(41)씨의 시신이 안전벨트를 맨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기어는 운행중(D)에 놓여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경지는 수심 10m 이상으로 깊지만 주변 공사와 가뭄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면서 차량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타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5



##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세부 시행 계획 연구회 개최

경북도 고령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고령교육지원청 3층 창의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 14명과 함께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세부 시행 계획 및 NEIS 응시현황관리 시스템 사용자 업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관, 평가 시행 기관별 역할과 책임, 평가 시행 관리 지침 및 방법, 평가도구 인쇄 및 배부, 채점 및 결과 처리,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 나이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관리시스템 사용자 업무 등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교육과정 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로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교과를 평가하며, 오는 23일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영수 기자

## 경북도교육청, 메르스 예방 예산 12억2천여만원 지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 내 유사 증상자의 사전 선별 및 위생관리 취약요소(손잡이, 화장실 등) 관리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한 예산 12억2천여만원을 일선학교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내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 1662개교의 예비용 마스크 및 학교시설 소독비용 등 메르스 예방 방역비,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미보유 43개 유치원)에 사용된다. 특히 체온계가 부족한 4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신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 지급한다.

경북교육청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역 물품을 즉시 구입 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예방활동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메르스의 학교 내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위생상 취약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통한 위생상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우 기자

## 대구가톨릭대 성아영 교수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대구가톨릭대 안경광학과 성아영 교수가 최근 '2015대 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KWIA)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성 교수는 '유해광선을 차단시키는 가스투과성 기능성 렌즈'를 출품해 금상을 수상했다.

성 교수의 발명품은 콘택트렌즈가 사용기간과 착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각막부종 및 실리온 습윤성 저하로 착용감이 나빠지는 부작용을 개선해 산소투과성 및 유해광선 차단 기능을 높인 것이다.

성 교수는 "실리온이 아닌 비닐기로 치환된 포스파진을 사용함으로써 산소투과율을 높이고, 자외선 등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물질은 첨가한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경은 기자

## 영남대, '외국어로써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개설

24일까지 전자메일 통해  
원서접수, 총 30명 모집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소장 서종학 국어교육과 교수)가 제16기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수강인원은 30명으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 전자메일(ccrk@ynu.ac.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과정 개설 및 원서 접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 누리집(http://ccrk.y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교육과정은 2005년 7월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에 따라 한국어학,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교수법, 한국문화, 한국어의 구조, 일반 및 응용언어학, 교육실습 등 총 123시간의 수업 및 특강으로 진행된다. 그 외 자격시험 대비 특강이 무료로 20시간 진행

된다.

교육과정수료 후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면, 영남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해외캠퍼스 한국어학당 파견강사 지원 자격과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053-810-35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남대 국어문화연구소는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돼 10년째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민들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단체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경은 기자



# DGIST, 기술·시장 창조적 연결에 대해 논의

## 'SOItmC & KCWS 2015' 국제공동학술대회 열려

개방형혁신복잡성학회(SOItmC·학회장 윤진호)는 세계자본기구(WCI)와 공동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행동에서 개방형 혁신, 지식도시,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SOItmC & KCWS 2015'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오는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술과 시장의 창조적 연결을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기술과 시장의 창조적 연결을 위한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Open Business Model)' 발표를 통해 기술을 사업화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 기업가 및 예비 창업자들이 '개방형 혁신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겨룰 예정이다.

학회 기간 동안에는 노르웨이 베르겐대 필립 쿡 교수, 일본 도쿄대 무이오 코다마 교수, 멕시코 몬테레이공대 프란시스코 자비에

르 카릴로 교수, 서울대 이근 교수, DGIST 이공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기초강연을 펼쳐 전 세계적인 기술과 시장 관계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경북대 등 국내 주요 9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해 10개의 특별 세션과 4개의 일반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한 윤진호 학회장(DGIST IoT·로봇융합연구부 박사)은 "기술과

시장의 창조적 연결과 결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DGIST에서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SOItmC(Society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는 경영·경제에서부터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공학 분야의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글로벌 학술조직으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국제 학술단체다. 김영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축설계 설명회

## 항공·의료 분야 전문인재 양성 특화 글로벌캠퍼스 조성

영천시는 15일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축설계 설명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석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권호영 영천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업체 관계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의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는 영천시 화릉동 산 14-7번지 일원에 2017년까지 352억원을 투입해 8만66㎡부지면적에 4만6866㎡규모로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법안에서는 11억원의 설계비를 들여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서울소재 쉐라톤그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 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의 건축계획과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계를 의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쉐라톤 관계자는 건축·토목·조경 등 제반분야의 영역별 구역을 구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행동선의 캠퍼스 본관을 통한 시설별 연계 및 순환형 산책로를 제시했으며, 보차분리 출입구를 만들어 차량동선의 효율화와 시설별 근접 주차가 가능토록 했다. 영천캠퍼스는 항공전자·항공정밀기계·



의료기기·의료정보·의료IT·보건의료 6개학과 6개 전공 2년 과정의 다기능기술자 배출 특성화 대학이다.

지난달 미 항공보안사의 MRO센터 준공으로 항공분야의 발전가능성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고,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으로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기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가 목표이다.

영천시에서는 내년초 본격적인 폴리텍 본부의 건축·토목 공사에 발맞추어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제반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김영석 시장은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가 항공·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의 요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개념의 폴리텍대학 선두모델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만 기자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첫 경력법관 4명 배출 '전국 2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4명이 첫 경력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내달 1일자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법관 37명 가운데 경북대 로스쿨 출신은 4명으로 서울대(5명) 다음으로 많다.

신임법관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으로, 로스쿨 출신 첫 법관 임용이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연수교육 결과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비교적 많은 143개 교과목을 개설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1인 1좌석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졸업시험 제도와 함께 기출문제 풀이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 실시 등으로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일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경북대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4명은 학부 전공이 법학이 아닌 심리학, 외교학, 컴퓨터학, 신문방송학 등 비법학 출신이다. 이번 결과는 다양한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충실한 성과라 생각한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 법학 전공은 물론 비법학 전공자들이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 경북교육청, 전산 업무담당자 '1인1분야전문가' 양성

총 7개 분야 TF팀 구성  
교육·연구 활동 수행

경북도교육청은 전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교육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전산 분야별 전문가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1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1인 1분야 전문가'는 IT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보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개발, 네트워크관리, 정보보호, 정보화사업, 스마트 오피스환경, 정보화일반으로 총 7개 분야에서 TF팀을 구성해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산 전문 분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유지보수업체 엔지니어를 활용한 직장 내 현장 유지보수 교육도 강화한다.

더불어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전문 기술을 습득수법에 적용하고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전산분야 전문성을 살려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은 물론 프리젠테



이션, 홈페이지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우 기자

## 경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훈련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교육정보시스템(323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제2회 통합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력량 부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을 실제 상황으로 설정하여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올해 예정된 교육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 각종 매뉴얼 등을 보완 및 정비했다. 이원우 기자



# 대구 다사지역주택조합 ‘한양수자인 이지시티’ 이목 집중

각종 개발호재로 미래가치 상승 기대 선호도 높은 중·소형 464가구 구성 지하철 2호선 다사역서 걸어서 3분 역세권 아파트 오는 19일 주택 홍보관 조합원 모집 채비 ‘착착’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에서는 각종 개발호재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 달성군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사지역주택조합(가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다사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풍리 574번지 일대에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 아파트 총 464가구를 짓기로 하고, 조만간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달성군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20년 새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며 인구 20만 명을 목전에 둔 인기 주거지역이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될 당시 인구는 12만66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기준 19만33명(외국인 포함)으로 7만여 명이 늘어났다. 현재 인구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달성군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 기대심리에도 맞물려 있다.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성서5차 산업단지, 옥포보급자리 주택단지 등



대구 규모 개발 계획이 잇따르고 있고, 내년까지 2만2000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완공돼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가 들어설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달성군 가운데서도 9개 읍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난 10년 새 인구가 2배가량 늘어난 곳이다.

특히 다사읍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까지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공사는 총연장 9.3km, 폭원 20m(4차로), 총사업비 1875억 원이 투입돼 대구 서북부의 성서5차 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과 경북의 구미공단, 왜관 산업단지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이다.

이 광역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대구-왜관을 연결하는 국도 4호선과 국도 30호선의 일부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이 완화돼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는 59㎡ 250가구, 84㎡ 214가구 등 환급성이 뛰어난 중·소형 위주로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형 아파트

는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특히 불황 때 임대나 매매에 더 강한 특성이 있는 만큼 실수요나 투자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다.

시공 예정사는 한양건설이며 신탁사는 코리안신탁이다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는 마천산 자락에서 금호강을 내려다보는 전혜의 배산임수 입지로, 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이 도보로 3분(300m) 거리여서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성서IC, 남대구JC, 금호JC와 인접해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세천교를 통해 성서5차 산업단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다사 초·중·고교, 계명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 또한 우수하다.

인근에 첨단복합신도시 테크노폴리스가 개발 예정이고, 대구외곽순환도로 지천-동대구(21.65km) 연장공사 착공, 잔여구간인 성서-지천(12.7km)은 2개 공구로 나눠 5월과 오는 9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0년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된다.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는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는 한편,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이고, 단지 내 바람순환을 극대화한 설계가 돋보인다.

중·소형 아파트의 주요 타깃인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가정을 겨냥해 ‘안전한 놀이 공간’을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띈다. 멋진 수목이 어우러진 ‘햇살광장’을 갖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키즈 플레이존’도 조성한다. 모래를 만지며 노는 자연친화적 놀이 공간 ‘클레이 플레이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한 보육이 가능한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을 두루 갖춰 자녀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성인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꼼꼼히 챙겼으며, 자동차의 대형화 추세에 걸맞게 일반적인 주차장 가로 폭보다 20cm 더 넓은 2.5m ‘확장형 주차장’(일부)도 조성한다.

다사역 한양수자인 이지시티는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8번지(성서점 이마트 옆)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670-2900로 하면 된다.

김영식기자

##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 체결

화성산업, 총 1316세대 ‘으뜸’ 역세권 미래가치 높아

화성산업과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2일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15일 화성산업에 따르면 신암4동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46-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55,466.30㎡, 지하2층-지상 15-17층 1140세대, 오피스텔 176실 등 모두 1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립될 계획으로 전용면적 59㎡, 84㎡, 101㎡, 123㎡로 구성돼 있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115㎡, 145㎡ 등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86%를 차지할 만큼 실속형 규모로 구성될 계획이다.

신암4동 뉴타운 지역은 동대구로를 따라 수성구 및 범어네거리를 통해 달구벌대로와 지산·범물지구 등으로 통하고 대구 도심 및 시외를 아우르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시공 및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인해 그 비전과 미래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그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속속 시공사들이 선정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



적으로 진행돼 대구 도심정비사업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성산업은 이번에 신암4동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역대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재건축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며 재건축사업이 또 하나의 주거문화가 되는 대표 이름이 됐다.

당시에 한강이남 최대 재건축사업이었던 황금주공(4256세대), 송현주공(2420세대), 수성동아(373세대), 만촌재건축(410세대)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에

는 침산 화성파크드림(침산동 재건축사업) (1640세대)을 통해 2014년 1순위 청약 전국 최고기록을 세워 분양아파트 중 최고의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아 고객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주거문화를 이뤄 왔다.

아울러 지난해 공사계약체결한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 봉덕 가변지구 재건축사업과 올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죽전3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암4동 뉴타운은 이번 공사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17년도에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산업 권진혁 이사는 “먼저 화성을 믿고 선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주거공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덕 조합장은 “화성산업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술력이 시공사 선정의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조합과 화성이 잘 소통하고 협력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 아파트로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현 기자

##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국제 에너지 행사 ‘진두지휘’

WEC 공동회장으로 글로벌 리더들과 에너지 현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아시아 클린 에너지 포럼’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 전세계 LNG국제 거래량의 70%를 수입하면서도 가장 경직된 가격구조를 갖고 있는 아시아 LNG 시장의 문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국제 에너지 행사에서 핵심으로 활약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대성그룹에 따르면 세계에너지회의 회(World Energy Council) 공동회장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15일부터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에너지 리더 서밋(WELS, World Energy Leader’s Summit)’과 ‘2015 아시아 클린 에너지 포럼(Asia Clean Energy Forum 2015)’에 주최단체인 WEC 대표자격으로 참가해 전체 프로그램을 지휘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WEC의 창간 회의와 3개 상임위원회 회의도 주재한다.

세계 에너지 리더 서밋은 WEC 주최로 연 2회 개최되는 회의로 각국 정부 에너지부처장·차관,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에너지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세계 에너지 리더 서밋에서는 ‘아시아 지역 에너지 삼중고(The Asian Trilemma)’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접근성, 기후변화 등 삼중고에 초점을 맞춰 정책 균형과 국가 및 지역적 협력, 에너지

이와 별도로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참가국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이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지는 자원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2015아시아 클린 에너지 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WEC,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정책입안자와 기업관계자, 투자자 등이 모여 이들 분야의 협력과 기술교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에는 LG화학, 효성, 우리젠 등 국내기업들도 대거 참가한다.

김영훈 회장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 에너지 분야 현안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에너지 공급과 이용을 목표로 하는 WEC의 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비전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현 기자

## DGB대구은행, 차세대 정보계 고도화 시스템 ‘iNexpia’ 최종 오픈

15개월간 추진한 선진 IT인프라 구축 사업 성공적 마무리 대고객 통합 분석 고품질 고객 응대 기대

DGB대구은행은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선진화된 차세대 정보계 고도화 시스템 ‘아이 넥스피아(iNexpia)’를 성공리에 최종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IT구축 사업자인 SK C&C와 프로젝트 총괄 관리 EY한영과 함께 진행된 ‘iNexpia’ 프로젝트는 2014년 3월 착수에 들어가 지난 15개월간, ①CRM시스템 고도화 ②정보계 포털 시스템 구축 ③보고서 시스템 구축 ④전행 통합 데이터(빅데이터 포함) 구축, ⑤기술 아키텍처 및 데이터 전략체계 수립 등 5개 영역에 나눠 설계와 구축, 테스트 등의 단계로 진행

됐다.

‘iNexpia’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 계정계 중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이후 2단계 차세대 시스템 가동으로 기대를 모으며, DGB대구은행의 최신 IT인프라에 기반한 스마트 금융 전략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목표 아래, 직원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계 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 이를 위해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iNexpia시스템은 ①산재된 고객 정보의 통합, ②체계적인 캠페인 프로세스 ③빅

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상품정보 ④다양한 고객 행동 분석과 간편 재무설계 등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별 일정 제공을 가능하게 한 정보계 포털 고도화, 보고서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도 함께 이뤄져, 다양한 고객 분석 정보를 활용한 고품질 대고객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홍수 IT본부장은 “‘iNexpia’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활용 기능을 포함해 CRM마케팅 실시간 분석에 밀착한 시스템으로, 현장의 실질적 영업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며 “본 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으로 지역 밀착 영업 강화와 함께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 DGB대구은행,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광·공연 등 업종 총 500억원 지원



DGB대구은행은 15일부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메르스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정상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공연·여행·숙박·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영업장점이 현장 조사를 통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본점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며,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도래 시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도 전환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관광서의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했고, 운전자급 한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대체하는 등 피해기업들이 사업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자유현 기자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7

## 달성 고령

성주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김문오 달성군수는 16일 현풍면 소재 달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예방 대책'을 보고 받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16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기관장과의 협의회'에 참석한다.

### 성주군, '쓰레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배출하자

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클린 성주 만들기' 운동의 생활 속 실천을 위해 마을 리더인 이장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지키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후 배출하기 △부직포·반사 필름을 제외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이었으며 검정색 봉투 등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선남면은 6월 이장회의 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현황을 재조사하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재정비 후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두상 기자

### 고령소방서, 공직기강 확립 청렴 교육 실시

고령소방서 고령구조구급센터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최근 발생한 메르스 관련 대응메뉴얼 등 공직기강 확립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기 위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관한 교육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심환자 이송대책 및 대응지침, 개인 보호장비 사용관리 등 메르스 관련 전반적인 지시사항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권중운 구조구급센터장은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요령을 정립하고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언행 금지와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 고령 '대가야 동태탕해물탕' 사랑 나눔 계속되다

고령군 대가야읍 소재 '대가야동태탕해물탕' 대표 김영숙씨는 가정의 달인 지난달 저소득노인에 이어, 6월에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식당의 정기 휴일인 매월 둘째 토요일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과 닭죽 등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고, 6월에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음료를 대접했다.

김영숙씨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르신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상 기자



# 달성군 축구협회, 中 '레서FC 한인축구대회' 참가

### 한·중 양국 민간 우호교류 앞장

달성군 축구협회(양명석 회장·배재욱 단장)는 지난 7일, 선수단 23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칭따오시 '레서FC회장배 한인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레서FC 회장배 한인축구대회'는 12개 팀 300명이 참가했으며, 11개팀은 중국교포와 유학생 팀으로 구성됐다.

달성군축구협회는 초청팀으로 참가해, 열띤 경쟁 속에 우승과 함께 김동근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박환진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도재준

선수가 득점상을 받아, 달성군축구협회의 명예를 높였다.

특히 달성군선수단은 유니폼에 '백년달성 꽃피다', '사문진 나루터' 등 달성군 주요 관광지를 글자로 새겨 넣어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양명석 달성군축구협회 회장은 "칭따오시에서 교포와 유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달성군축구협회는 칭따오시 레서FC와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강화해, 양국간의 민간교류와 축구발전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 성주군,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추진

### 군청 현관 태극기사랑 70일 운동 홍보문 설치 시선 끌어

성주군은 2015년, 광복 70년의 해를 맞아 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8·15 광복절에는 군민들이 자

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 태극기 물결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은 광복70년, 분단70년, 미래70년을 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군에서는 태극기 100% 달기를 목표로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군청사 현관 태극기사랑 70일 운동 홍보문을 설치하고 태극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원실, 읍면사무소 태극기 판매대행을 강화할 생각이다. 또한 방문기념품과 표창장 수여시 부상으로 태극기를 증정하며, 태극기 게양 모범거리 추가 조성 및 365일 태극기 게양다리를 확대 조성 할 계획이다.

특히 성주군에서는 읍면의 실정에 맞는 태극기 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읍면 행정실 직원이 항복으로 도입, 태극기 트리조성 및 태극기 바람개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난 1일 중앙부처에서 태극기 선양운동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015년은 광복70년, 분단70년, 미래 70년을 여는 역사적인 해인만큼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 성주군, 실과소 읍면동 확대간부회의 열어

### 메르스 유입차단 위한 예방활동 강조 지시

성주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실과단소 읍면동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당면현안 추진 및 중동기 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지역 내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실과단소별 당면현안 보고에 이어 지역특산물 성주참외의 해외수출 확산과 클린 성주만들기의 정착을 위한 노력, 성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환자가 경북 도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도 메르스 손소독기 및 근무자를 비치, 철저히 관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한 예방대책을 세워 메르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운동의 공무원 숭선수범 참여와건강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단체의 참여 등 지역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두상 기자

## 달성군청 직원,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 구지면 일대에서 양파·마늘·감자 수확작업, 농민 노고 몸소 체험

달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직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유가면과 구지면에서 김문오 군수 및 군청직원 230여명이 참여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달성군청 직원들은 바쁜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지난 9일에 유가면 일대, 지난 10일에는 구지면 일대에서 양파, 마늘 및 감자 수확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민들의 노고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문오 군수는 지난 10일 일손돕기에 참여

### 한국농어촌공 '노·사 합동 농촌사랑 일손돕기'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15일 노동조합, 분사 및 본부, 경산·청도지사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 관내 일손이 부족한 포도 농가를 방문해 '노·사 합동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 날 황병관 노조위원장, 권기봉 경북지역본부장, 이강환 인사복지처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3500평의 포도밭 일대에서 포도순 제거 작업을 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일손이 없어 과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협심해 참여했다"며 "매년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일손돕기를 더욱 확대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해 "농번기마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작업에 임해 달라"고 말하고 "일손돕기 참여를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http://council.dalseong.go.kr>

19th 대구광역시의회

달성군의회

오직 국민의 행복만 바랍니다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8

## 포항 경주



최양식 경주시장은 16일 오후 KTX 신경주역사 등 '메르스 대응'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메르스 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메르스 관련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 경주시, 메르스 확산 예방 조기 종식 총력

민심수습 정확한 정보전달

지난 12일 경주지역에 메르스 양성 확진환자 1명 추가발생으로 경주시와 지역의료계에서는 연일 메르스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15일 오전 본청, 읍면동 등 간부공무원 대상 확대간담회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역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시민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경주는 관광도시이며 각종 국제적인 행사가 많은 만큼 전 직원들이 능동대처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민심수습과 정확한 정보전달과 유언비에 적극 대처토록 당부했다.

15일 현재 시에서는 메르스 확산 예방과 조기종식을 위해 경주 하이코, 동국대 경주병원, 시 보건소, KTX신경주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 감시카메라 6대를 고정 배치 했으며 2대를 긴급 추가구입, 경주서라벌 회관 배치 등 국제행사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인력 부족과 열화상 감시카메라 추가 배치 등으로 15일부터는 KTX 신경주역사,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3인 1조씩 2교대 근무(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오후 11시)를 실시한다.

지역의 메르스 동향으로는 확진환자 3명(11번째 환자·여, 79, 29번째 환자·여, 77, 131번째 환자·남 59) 중 29번째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오늘 5차 검사결과에 따라 조만간 퇴원이 예상되며, 12일 131번째 환자 접촉자 중 고열로 검진의료원에 격리 입원한 환자도 1·2차 모두 음성으로 확진돼 조만간 퇴원 예정에 있다고 보건 관계자는 전했다.

시에서는 지역의 메르스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만일을 대비, 전 행정력을 올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개인위생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주위에 고열,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 보건소(054-760-7790-4)로 연락 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 미래세대 승고한 희생정신 절대 잊지 말자

경주시, 유공자 세대 방문

이동희 경주시 외동읍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외동 관내 국가유공자 중 어럽

게 생활하는 보훈가정 2세대를 위문하고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입실리 성우빌라에 거주하는 상이군경 손모씨와 입실리 LH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남전

에 참전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가정을 방문해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생활에 묘사향을 걱정했다.

이날 가정방문을 받은 국가유공자들은 "읍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 일선 행정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찾아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윤용찬 기자



# '2015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 19일 개막

경주예술의전당서 19일부터 21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져 개막식 공연 '만파식적의 꿈' 평화·화합, 호국 힘 되살려

지난해 봄,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우울과 슬픔에 잠겨 침통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그 후풍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 가운데 조심스럽게 문을 연 '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은 만파식적 본래의 의미대로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힐링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찾는 이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치유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자연 재해와 분쟁, 바이러스 등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2015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은, 근심을 잠재우는 신기한 피리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 다시 한 번 우리를



건강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사)신리만파식적보존회가 주관하고 경북도가 후원하는 '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 만파식적의 본 고장인 경주에서 인류의 안녕과 지구촌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아 올해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화려하게 펼쳐진다.

경주세계피리축제는 음악을 통한 힐링 문화 예술 축제를 표방하며 해마다 국내외 관광객과 경주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아 온 것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들을 찾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막식 주제공연 '만파식적의 꿈'을 무대에 올려 전설 속의 피리인 '만파식적'의 설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피리가 가진 평화와

화합, 호국의 힘을 현대에 되살리려는 노력을 담아낸다. 또한 19일 개막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 국적을 아우르는 다국적 뮤지션들의 음악과 댄서들의 춤도 어우러져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 열리는 세계피리명인전에서는 초청국가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대만, 우즈베키스탄)의 수준급 명인들의 연주와 해설, 해당 국가별 영상이 한데 어우러져 눈과 귀가 즐거운 세계 피리 여행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피리와 전통 악기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와 악기 체험, 문화 체험과 국제 전통악기 포럼, 전국대금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려 피리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경주는 '만파식적' 설화가 내려오는 국악의 발상지이자 우리나라 신라시대 궁중음악을 관장한 최초의 음악기관인 음성서가 있던 지역이며, 이번 축제는 세계 유일의 전통피리(笛) 축제로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전 세계인의 평화를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용찬 기자

### 포항시, 기계가축시장 휴장 16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포항시가 지난 12일, 경주시에 거주하며 기계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남성(59)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됨에 따라 메르스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포항축협 기계가축시장(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481)을 16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의 유일한 가축시장인 기계가축시장은 5일장으로 1일과 6일은 일반가축을 거래하고, 매월 11일과 21일은 송아지를 경매하며, 한 해 평균 2160마리의 소가 중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포항시 진원대 축산과장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축산 농민들의 우려와 지역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가축시장을 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15일 오전 포항축산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사무실 5곳을 방문해 관내 메르스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앞선 구제역과 AI 방역을 경험삼아 축산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방역활동과 위생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호 기자

## 모든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확산방지에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 시민의 불편·불안 해소 전력투구

포항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 지 나흘째를 맞은 15일, 메르스 대응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경주시에 거주하며 기계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남성(59)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됨에 따라 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남·북구보건소에 운영하던 상황실을 '범시민 메르스 대책상황실'로 격상해 교육청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2일에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 의심자로 추정돼 김천의료원으로 후송됐던 경주시 거주교사 1명은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으며, 의심환자였던 13명의 학생과 일반인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따라서 15일 오전 9시 현재, 포항시에는 자택격리 138명과 능동감시 113명 등 총 251명이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일대일 관찰·감시를 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 기계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업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에 대해 연기 또는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메르스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온 만큼 병·의원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감염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24개소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방문자를 통제하고, 포항의료원과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선린병원 등 관내 8개 대형병원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밖에도 기계면 전역은 물론 학교와 복지시설, 종교시설, 관광숙박, 산업단지, 의료기관 등 관내 1만2465개의 다중집합시설 가운데 15일 현재 92%에 해당하는 1만1451개소에 6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방역을 실시했으며, 손소독제(2748개)와 마스크(14만개), 체온계(200개) 등의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20여만 장의 홍보 전단지 배포해 메르스 예방과 대처방안을 알렸다.

이 같은 포항시의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포항지역에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오전에 있었던 포항시 대책상황실 점검회의에서는 예방활동과 확산방지



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격리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조기 지원과 함께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종 지원방안과 예산편성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유언비에 따른 시민 불안감과 경기침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해소되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전 공무원이 방역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메르스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맛의 임금 ESHGEUM 이사금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Beautiful Gyeongju

경주시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9

## 경산 영천 청도 영덕 울진 울릉



김영석 영천시장은 16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영천시경관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16일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2016년도 국비예산을 건의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6일 오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과소담당 주무관회의를 주재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16일 울진읍회의실에서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 총회에 참석한다.

### 경산경찰서, 일손 부족 농가 봉사활동

메르스 여파 농촌 일손 부족

경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봉사동아리 '사랑나눔봉사회' 회원 30명과 함께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 남산면 반곡1리 농가를 방문하여 포도 순 따기 작업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도재배농가 이모씨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농촌 일손이 부족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쁜 업무속에서도 지역농가를 방문,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상현 서장은 "최근 지역농가들이 메르스, 가뭄, 일손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백자산 환경정화 봉사

경산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13일 직원 15명이 참여해 백자산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백자산 등산로 구간의 쓰레기를 구석구석 수거하며, 주변 잔가지 및 고사목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휴일을 맞아 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백자산

을 깨끗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했다.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인 백자산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신경운 기자



# 경북TP, 강소기업 평가 최고 등급

## 지역 8개사 성장전략 컨설팅·R&D기회 지원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이재훈)는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신청결과 '가' 등급에 선정돼 도내 8개사를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및 R&D기회를 지원한다.

가 등급(4개 지역) 9개사 내외, 나 등급(7개 지역) 5개사 내외, 다 등급(3개사 내외) 3개사 내외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한국형 하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북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성장성과 수출역량

을 겸비한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월드클래스 300 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경북도 공고를 통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인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점검 3단계 지역평가를 거쳐 중앙평가에서 최종 8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강소기업은 총 3년간(1차년도 국비 7500만원, 2-3차년도 국비 최대 2억원)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및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를 통한 기업 니즈에 맞는

인력, 금융, 기술사업화 등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년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시 우대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엔소닉, ㈜금강, ㈜대평, ㈜세교하이텍, ㈜부영섬유, 대영전기(주), ㈜한중엔시에스, ㈜지엔테크 등이다

이와 관련 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원장은 "경쟁력 있는 경북소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강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경제 제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지원 역량을 집중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 영천시, 광업·제조업 부문 실태 파악 나서

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관내 345개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산 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수입액 등 13개 항목으로 당해 사업체의 실적만을 조사표에 기입한다.

이 자료는 산업구조분석 및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 인력수급분석 및 지원 등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일만 기자

### 영천시, 과일 선별 이젠 귀로 듣고 손으로 포장



영천시는 지난 11일 음성식 과일선별기를 농가에 시범보급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식 선별기는 과일포장 시 무게에 따른 개별 과실등급을 음성으로 알려줘 등급별로 손쉽게 포장해 출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인 과일선별기는 가격도 고가이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반면 음성식 선별기는 저용량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좁은 장소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선별기와 달리 선별 시 과일 간 부딪힘으로 인한 상처 발생이 없고 동일 기계로 사과, 복숭아, 배 등 다양한 과일을 선별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음성식 과일선별기를 이용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규격 포장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영천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보급한 음성식 선별기의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농가실정에 맞도록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일만 기자

### 영덕군, '호국영령' 그 정신 영원히 잊지 않으리

영덕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96년 전 1919년 3월 18일(음 2월 17일) 영해 장날을 기점으로 축산, 창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이 합류해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경북지역 최대의 독립운동 '영해 3.18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호국정신문화제'가 열려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인 3·18 영해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또한 일제강점기인 1878년 영덕군 축산면에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약관의 나이에 영령의병진을 조직해 10년간 전국을 돌면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큰 의기를 보여줬다.

매년 6월이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장산 신돌석 장군'의 순국 숭모제향 행사가 열리고, 가을에는 전국 최고의 공사를 뽑는 '신돌석 장군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가 영덕 화립정에서 개최돼 매년 2000여 명의 공사들이 참여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양동작전으로 간행돼 6·25 전쟁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장사상륙작전'의 학도병 772명의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 숭고한 업적과 굳건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달 1일 당시 좌초되었던 LST문산호를 실물모형으로 복원해 남정면 장사리에 거치됐으며 완공되면 장사상륙작전 스토리전시관으로 활용돼 그 구국정신과 희생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메르스의 여파로 현충일 기념식, 신돌석 장군 숭모제향제가 축소, 취소돼 아쉽지만 호국영령들의 그 숭고한 정신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6월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승권 기자

# 영천시, 베트남에 '새마을시범마을' 만든다

## 해외봉사단 탄압2마을 파견 새마을운동 1년만에 정착

영천시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기술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베트남 님투언성 님성현 탄압2마을에 해외봉사단을 파견, 새마을조직육성, 의식교육,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파견중인 새마을 해외봉사단 4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영천'의 긍지를 가지고 현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 1차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식을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다. 1차년

도의 사업은 마을진입로 개설, 우수시설설치, 마을환경정비, 유치원시설 개선, 새마을조직 결성 및 교육, 유아 및 초등생 통장갖기운동 등을 추진했다. 탄압2마을 주민들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협동해 함께 사업을 추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에서는 2-5차년에도 봉사단 5명을 지속 파견, 새마을정신 함양과 소득증대사업에 더욱 치중해 영천의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빈곤퇴출을 통한 인공공업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해외 글로벌새마을운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일만 기자

김일만 기자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 영덕

영덕군은 태백의 지맥으로 팔각산과 옥계계곡 등 명산정경과 동해안 86km의 청정바다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이름난 곳이며 자랑스런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이 서려있고 대게, 산송이, 복숭아 등 특산물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고장입니다.

물과 미음이 함양되는 아름다운 고장 영덕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Welcome to Yeongdeok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10

##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칠곡



박보성 김천시장은 16일 오전 김천시청에서 개최되는 시립모임어린이집 준공기념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슬로시티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6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성을 공공디자인 및 간판정비사업 보고회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16일 오전 오후 수비면을 대상으로 가뭄피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의성군, 목화 화분 무료 분양

의성군은 지난 10일부터 목화 무료 분양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무료 분양은 문익점 면작기념비가 있는 의성군 금성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출향인과 개인에게는 1-2분, 단체 5분, 기관 10분을 기준으로 총 600분을 선착순 분양했다.

의성군은 목화화분 무료 분양행사를 매년 진행해 왔으며 조문국 유적지 인근 금성면 대리리 266에 목화체험지(1320㎡)를 조성하는 등 목화의 시배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 금성면은 목화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조선 태종 때 현령인 문승로(문익점의 손자)가 목화를 재파했으며 이후 전지역으로 퍼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작물이자 많은 소득을 안겨준 작물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순종3년 금성면 제오리 처음 심은 밭에 문익점 목면유전비를 세웠다.

박재성 기자

## 칠곡군, CYS-Net 연계기관 지도자 교육 운영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13일에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계) 연계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 청소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관심유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마련됐다.

이날 6개 기관, 50여명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아들러시리협회장인 전종국 강사를 초빙해 '아들러 상담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은진 기자



## 의성군, 가뭄장기화 급수 대응체제 가동

### 가뭄상황·대책추진, 점검 관리 만전, 가용재원·인력 장비 최대한 동원해 총력

의성군은 평년대비 5월말 현재 74.1%의 강우로 가뭄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수돗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뭄대비 전 직원 총체적 대응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올해 강수량 부족과 6월 기상 전망에 따라 가뭄양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뭄상황 및 대책추진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용재원 및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상수도 급수대책

관련 총체적 대응 상황실을 확대·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지역별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별 급수상황 및 대책추진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전망으로 20일까지 비가오지 않거나 소량의 강우시 2모작 모내기 등 농작물과 관련, 하천 유지수 수량부족과 지하수 수위 저하의 원인으로 식수난 예상으로 보고 특히, 소규모시설(마을상수도 등) 280개 시설에 대해 매일 급수상황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책 마련에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군은 후속조치 사항으로 부서 전 직원이 가뭄대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현황 자료 및 처리 상황을 의성군 웹하드에 업로드해 업무를 공유·개방 시켜 빠른 대응을 기하는 한편, 매일 현황을 방문, 가뭄대책 추진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의견을 수렴해 항구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 김천경찰, 청소년 대상 무료 문신제거 시술 지원

### 우리도 반팔을 입을 수 있어요

김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맺은 김천의료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조모군을 비롯, 5명의 학생에게 문신제거 시술을 받게 했다.

조군은 2년 전 선배들이 새긴 문신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에 오른쪽 팔 삼방부위에 사자 성어의 한자 문신을 새겨 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새긴 문신이 창피해 더운 여름에도 긴 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시술비용 때문에 감히 문신 제거는 마음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전해들은 김천경찰서 박윤정 경사는 김천의료원의 지원으로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조군은 "아직 몇 번 더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치료하러 올 때마다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내 몸에 새겼던 문신 흔적이 조금

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니 행복하다."고 했다.

김천경찰서는 2013년 김천의료원과 업무협약 맺은 이후 올해까지 24명의 학생이 무료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로 문신제거 시술을 하는데 흔쾌히 허락해 준 김미경 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규목 기자



## 군위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집중홍보

군위군 보건소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14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이용, 지원함에 따라 미접종자 및 누락자 등에게 집중홍보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편 예방접종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종류는 14종으로 BCG(파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

리오), DTaP-IPV, 수두, TD, TDap, MMR,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Hib(뇌수막염), 소아패렴구균, A형간염이며 전액무료이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군위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고 접종 후 전산등록 요청해야 한다.

군위군 위탁의료기관은 현대내과의원이며,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및 위탁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 옛 지도 속 상주, 티셔츠 만들며 배워요



### 상주박물관 '2015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

상주박물관은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2015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상주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3차(총 40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먼저 상주 시내 초등학교 3-4학년 생 695명을 시작으로 '지도 속! 우리 고장 속 속!!' 프로그램(총27회)에 참여한다.

'지도 속! 우리 고장 속속!!' 과정은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과목과 연계, 상주박물관이 소장한 옛 지도에 표현된 우리 고장 상주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고, 직접 티셔츠에 자신의 색깔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4회째 참여한 상영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설문 결과 "우리 고장 상주를 옛 지도를 통해 알아보고, 내가 만든 티셔츠를 직접 입어 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수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우고, 학교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각 박물관 소장 유물과 자료를 활용한 체험식 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증대 등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재영 기자

## 이정백 상주시장, '한국농업의 길을 묻다' 주제발표

###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최, 토크 콘서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 참여

상주시 이정백 시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농어민신문사(대표이사 윤주이)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한국농업의 길을 묻다' 토론자로 참석, 지역 농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백 상주시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정찬주 월광영농 대표, 강수진 강수진팜 대표,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하고, 200여 명의 청중이 열린 토론을 경청했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 △청년농업인들이 제안하는 농업정책 △FTA, TPP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농가 소득 안정 등 농정현안사항 문제점 해결 방안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백 시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의료기관 부족, 도시이주 및 출생아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농번기 인력부족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살아야 농촌도 살고, 나라의 경제가 튼튼

해 질 것"이라며,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뒷받침 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성단체와 다문화 가정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행적인 농업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 농업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안목을 넓힌 앞서가는 영농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서 깊은 인력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개척 △농업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업 6차 산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 및 관광산업 등과 연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모든 농업관련분야에서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템과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면한 농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비전에 대해 농업이야말로 미래 성장 산업임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올해로 창간 35주년을 맞은 한국농어민신문이 그간 한국 농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오재영 기자



백악기 시대 거대한 공룡공원, 공룡발자국화석시 의상대사와,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일이 서린 천년 고찰, 고은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라리 간직한 사촌마을

“경북농업의 얼굴”  
“경북의 중심”  
“부자농촌의 열쇠”

술숙의 산소탱크, 금봉옥산자연휴양림  
경북 3대 평야, 안계평야에서 나는 황토쌀  
민고 먹는 브랜드, 마늘포코·마늘소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은 곳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입니다.  
[www.usc.go.kr](http://www.usc.go.kr)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11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청송  
영양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한동수 청송군수는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 6기 출범 1년 향후 군정방향을 설명한다.

## 예천,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활동 전개

예천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688건 1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6월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중 1월과 3월 미리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31건43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황원식 기자

## 예천, 제28회 예천아카데미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

심리학박사 최창호씨 초청 강연

예천군은 오는 1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군민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리학박사 최창호 씨를 초청해 제28회 예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최창호 강사는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라는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한 치료 기법 등 타인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과 자신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창호 강사는 중앙대학교 사회심리학박사를 취득하고 인하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알파브레인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 '마음을 움직이는 77가지 키워드' 등이 있으며 KBS '아침마당', '여성공감', MBN '아궁이' 등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 한전KPS(주) 청송양수사업소, 행복을 나누다

한전KPS(주) 청송양수사업소는 지난 10일 청송군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송양수사업소는 이날 청송 진보면 이촌

리 소재 청각장애2급인 독거노인가구를 방문, 싱크대 교체와 이삿짐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독거노인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다 최근 조립식주택을 짓고 이사하게 됐다. 할아버지는 서투른 수화로 봉사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청송군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집안청소, 싱크대 및 행주, 식기소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 청송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실시

독도 티셔츠 만들기 체험 활동



청송초등학교는 지난 12일 교내 강당에서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경북도 독도재단에서 주최하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독도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독도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독도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5학년 조현욱 학생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독도지킴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깊게 공부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창재 기자

## '신의 한수 상상력' 미래 인재의 지름길입니다

영주시, 6월 영주아카데미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장 강연

영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6월 영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소장이 '신의 한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최윤규 소장은 경북 풍기 출신으로 충북대학교 졸업, 카툰경영연구소장, 빅스트리 인터넷(주) 대표이며, 석세스TV 운영자로 변

화와 혁신을 주제로한 카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리더쉽카툰&경영카툰의 개척자 임. 주요 기업과 교육기관 등에서 특강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서울시 명강사로 선정, 인기 있는 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

최윤규 소장은 500여명의 영주 시민들에게 창조경제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기 위한 노하우와 공직자의 작은 마인드와 관점의 변화로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로 색다른 재미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 안동보훈지청, 나라사랑 페스티벌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호국정신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

안동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지난 13일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호국영웅과 함께하는 '2015 통일염원! 나라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안동지역 출신 6·25전쟁 호국영웅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시민 등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

된 행사는 1부 전시체험, 2부 기념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1부 행사에서는 3개의 테마부스(호국영웅, 분단극복, 나라사랑)에서 '호국영웅께 감사메시지 쓰기', '통일 염원 풍선 및 부채 만들기', '나라사랑상징 타투 및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호국영웅 11인 포스터 및 6·25전쟁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호국영웅 스토리텔링', '청소년 댄스공연', '분단극복 통일염원 퍼포먼스' 등 기념공원이 1시간 가량 펼쳐졌다.

김용규 기자

## 천년지기 부석태 부활

영주시, 부석태1호 품종등록 연계, 부석태 지리적표시 권리와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가치제고



대원콩



부석태1호

콩은 우리가 먹는 곡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가 발상지이며, 재배역사는 기원전 2000-1500년경으로 추정된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콩은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물이다. 콩은 옛 조상의 애환이 서린 5곡중 하나이며 우리 전통 음식이자 한식의 뿌리인 간장, 된장 등의 장류 식품의 주 원료이다.

콩에는 빼어서 칼슘이 나가는 것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소플라본과 나쁜 콜레스테롤(LDL) 흡수를 막고 유익한 콜레스테롤(HDL) 흡수를 높여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밝혀지면서 영양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민족에게 중요한 콩이 오늘날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어 최근에는 식용 콩 자급률은 33%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수입산 콩의 잔류농약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 논란 등으로 인해 가격이 비싸도 국산 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웰빙을 넘어 음식을 통한 힐링(Healing)까지 원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토종 콩의 개발과 품종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시장 장우현)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토종콩의 명맥을 이어온 '부석태'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모색하게 됐다.

영주지역의 토종 '부석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경북 부석지방에서 콩종자를 수집, 1960년부터 경북지역의 장려품종으로 권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주 지역은 과거부터 국내 콩 주산지였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영주시에서는 토종 '부석태'의 복원을 위해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 유전자연구소의 협조로 '부석태' 50립을 분양받아 영주에서 수집한 재래 '부석태'와 비교 재배한 결과 100립의 무게가 50g이상 나오는 것과 30g 나오는 것 등 유전적 특성이 균일하지 않은 혼계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영주 '부석태' 명품화 기술지원을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우수개체 선발을 통한 순계분리 육종 기술을 이용해 품종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2012년에 국립종자원에 '부석태1호'라는 명칭으로 품종출원을 했고, 2013-2014년 재배시험을 거쳐 지난 5월 15일 품종보호등록이 결정돼 2035년 5월 14일까지 품종보호권을

영주시에서 보유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콩작목에서 품종등록을 완료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품종등록이 완료된 '부석태1호'의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콩알 크기가 일반콩의 1.5-2배 정도(36g 이상/100립)로 아주 굵은 것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영주지역에서 재배됐을 때 극대립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며 종자의 외관품질도 더 뛰어난 경향이 있었다. 영주시에서는 부석태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로 2008년도에 '선비승결 부석태, 선비승결 서리태'를 개발, 생산했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잠곡프로젝트와 연계해 고품질 토종콩 명품화에 앞장서 대도시 판매와 아파트 직거래 등 각종 홍보에 힘써 부석태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에는 부석태1호 품종등록과 연계, '영주부석태 지리적표시 권리와 지원사업'을 추진,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콩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관내 장류제조업체 11개소에 20여톤을 콩을 공급해 가공·판매한 결과 부석태를 이용해 만든 청국장, 된장이 일반콩을 사용했을 때보다 식감(食感)이 뛰어나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고 재구매율이 높아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기(氣)찬 음식, 기(氣)찬 맛, 기(氣)찬 영주'를 주제로 한 전국 51개팀이 참가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부석태로 만든 청국장 전골"이 대상을 수상하여 부석태가 맛과 소비자 기호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힐링먹거리 '부석태1호'의 확대 및 명품화를 위해 지원 조례 제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www.bonghwa.go.kr | 미래를 이끄는 녹색도시 상생발전

### 대한민국 대표 산리휴양도시 봉화

충정 봉화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지만 농특산물을 맛보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더욱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12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좌절하지 말 것.** 남보다 더욱 노력하면 달성할 수. 2·4·5월생 손·눈·귀에 이상 있다고 포기는 금물. 다른 자 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금운이 좋으니 더 분발하면 행운열쇠 찾을 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격. 연구직·철학과학계는 승진수가 있겠지만 4·8·12월생 성격상 타인 밑에서는 못 있는 격. 쥐·닭·범띠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좋으나 사업은 큰 재미 못 본다. 안 되는 것 잡지 말고 변동하면 길.

갖고 있는 재주는 좋은데 이용을 못하니 무슨 소용 있겠는가. 갈고 다듬어 준비한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자금유동이 힘들지만 돼지·범띠에게 자문을 청한다면 뜻을 이룰 듯. 7·9·11월생 신경성으로 고생할 수. 조심하라.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온다. 당신이 뿌린 것 당신이 거둬야 할 일. 6년 1·8·11월생 8월경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현재는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의무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가정이 파산된다 해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지켜야. 2·7·10월생 상대를 설득하면 평온이 올 듯. 이 생물 다시 먹지 않는다 해도 침만은 뱉지 말 것. 사업은 자방으로 옮겨서 새로이 도전하면 길운이 올 듯.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은 있으나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강하거나. 2·5·9월생 복잡한 문제를 탈피하려는 것은 좋으나 자신이 처리할 것은 스스로 해결하라. 믿고 따를 수 있는 뒷사람의 면모를 보아야 좋겠다.

안 되는 것 미련스럽게 잡고 있지 말고 직중을 바꿔라. 짜증만 내지 말고 당신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 긍정적으로 대항하라. 도움 주겠다는 자 많겠지만 쥐·범·토끼띠는 힘이 못된다. 1·9·12월생 북쪽 길.

오가는 말에 현혹돼서 허황된 꿈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할 것. 7·8·11월생 세 성급하게 판단 말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5·9·11월생 나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뜻대로 눈을 돌려 세상을 넓게 봄이 좋겠다.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면 가정 또한 불화가 생길 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대인관계가 원만 하다. 혹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침착성을 잃지 말 것. 7·8·9월생 노란색은 피하고 남·동쪽 행운이 도래하니 투자하면 길.

상대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뒤돌아보아 어필지. 7·8·11월생씨는 뛰는 만큼 얻을 수. 범·소·양·닭띠 괴롭히다가 후회하겠다. 혼자서 맘 울리지 말고 백지장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할 때. 목재업은 승부에 걸.

마음이 예리하고 약하기 때문에 회생을 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좋지 않음. 실속 있는 일에 손대면 좋겠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해라. 1·2·7·11월생 앞길을 닦는 것은 좋으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남의 말 좋아하다 병변당할 수. 5·7·9월생 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포기 말고 자신을 갖고 협력하라. 7·8·11월생 동업보다 지립하면 더 길할 수.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 행하면 대성하겠다.

# 달서구, 독서토론문화 확산 '나의 생각을 톡! Talk!'

참가자 모집 7월 6일까지  
청소년 올바른 독서방법 습득

달서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 방법 습득 및 독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제3회 톡(Talk)톡톡 어울림 달서독서토론대회'를 7월 17일부터 8월 8일 본리도서관 및 본리동복합청사에서 연다

참가자 모집은 7월 6일까지다. 대구지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올해 3회째로 개최하는 달서 독서토론대회는 2013년

부터, 2014년 가족을 주제로 개최, 올해는 '공동체와 개인'을 주제로 도서와 논제를 선정했다.

■초·중·고별 도서와 논제  
초등부는 '지금에 없는 이야기' 가위바위보 부분 (최규석 저), 공동체가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등부는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우리 저),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 정한 규칙은 따라야 한다. 고등부는 '투명인간' (성석제 저), 만수의 거짓 자백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열리는 토론대회는 새달 15일 대회접수 학생을 대상으로 신득렬

교수의 '올바른 독서토론방법'에 대한 특강을 한다.

17일 오후 3시부터 본리도서관에서 예선을 거쳐 초·중·고 각 4팀을 선발, 본선대회는 8월 8일 오후 1시부터 본리동복합청사에서 초·중·고 12팀, 36명의 학생들이 찬반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 3·4위전,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팀당 30분간 △입안(용어·관점·근거) △반박(상대핵심 적절 반론) △교차질의(간단 질의 응답) △조점정리(핵심쟁점 감성호소) △상대방에 대한 예의 및 경청태도 △팀원간

협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각 부문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대상팀 지도교사상 1명을 선발한다.

최종 결승전은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공개 관람이 가능하다.

지난 해 고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화여교 '아침의 주스팀' 현지원(18)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해 각 논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상호 주장·반박하는 토론 및 효과적 스피치 방법을 배웠다"며 "생활 속 꾸준한 독서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달서구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고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뤄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달서구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 전자우편(chaelib9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달서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토론 문화 정착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팀워크와 지도력을 배양,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30일까지 '재활용으로 놀자' 전시회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환경미술협회 작가와 대건고교 생활미술 동아리 학생이 함께하는 전시회 '재활용으로 놀자'전이 오는 30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e-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재활용의 미학'을 테마로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문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했다.

구선영 기자

고부이, 권여송 등 대구환경미술협회 소속 작가 34명이 정크아트 계열의 평면·입체·설치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건고 학생 65명도 전시회에 함께 참여해 공동 작품 17점을 전시한다.

김원일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은 "환경의 달을 맞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한 작가,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심미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문예회관 소장작품전' 안동서 막을라

지역 근현대 미술사 한눈에  
한국·서양화·사진·서예 작품  
40여점 전시... 눈길 끌어

지역 근현대 미술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2015 소장작품순회전'이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대구문예회관 신소장품과 근현대 회화의 근간을 이룬 한국화·서양화·사진·서예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이인성과 동시대 작가로 지역 근대화단을 이끌어 온 작가들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독특한 자연주의 화풍이 돋보이는 배병학(1907-1973)과 탁월한 심미안을 작품에 구사한 손일봉(1907-1985) 작가가 대표적이다.

대구화단을 대표하는 김수명(1919-1983)·서석규(1924-2007), 부산 근대미술의 김중식(1918-1988), 독일 유학을 통해 동양의 명상과 서구형식을 접목한 김수평(1942-1989)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원로작가 김영재(85)는 산악 등 대자연의 숭고함을 보여주고, 성백주(87)는 섬세한 감각의 장미화를 전시한다.

맥의 힘찬 기운을 감상할 수 있다.



장상의(74) 작가는 한국적 정서의 발현에 천착하고, 유황(77)작가는 선의 미학을 탐구한다. 해학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권정찬(60), 맥의 획을 통해 화(畵)의 본질을 탐구한 김서규(1963-2012) 작가의 작품도 보여준다. 서예 분야에서는 영남 서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독창성이 돋보이는 해정 홍순록(1916-1983), 대담한 산수와 소나무화로 유명한 민경찬(79)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역화단을 건강하게 떠받치는 청·장년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30대 작가들은 독창성과 신선함을 바탕으로 치밀한 완성도를 추구한다. 신진작가 김대우는 젊은 감각으로 해석한 서예 세계를 보여주고, 손지아는 회화적인 문인화로 신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해외작가로는 중국의 류진지(劉金芝), 허지아린(何加林), 하마타니호센(浜谷芳仙), 일본 오가모토 타다시(岡本正志)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유희 기자

## 새영화 할만큼 했지만 몰락한다...영화 '마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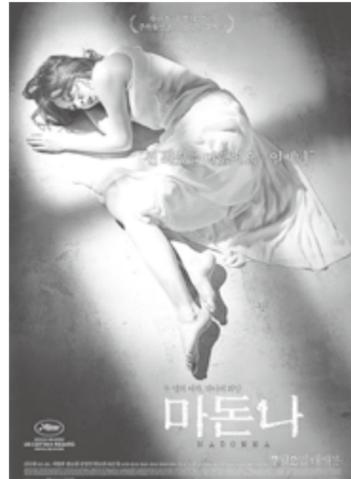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 노숙자 여자들을 보게 됐어요. 젊은 노숙자 여자들이요. '저 여자들 밤에 어디 가지' '왜 세상에서 내팽개쳐졌을까' '인간인데, 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을까' 생각한 거죠. 개인의 삶은 개인이 알아서 구원하라고 말하는 사회가 돼 간다고 느껴요. 상위 2%를 위한 사회. 노숙자에 대한 동정심도 느끼지만, (우리 사회에 관한)공포감도 느껴요."

영화 '마돈나'를 연출한 신수원(48) 감독은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영화는 '최선을 다해 산' 여자가 사회로부터 어떤 냉대를 받고 어떻게 몰락하는지 또 다른 삶의 극단에 몰린 여자를 통해 풀어낸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돼 호평받았던 '마돈나'가 국내에서 개봉한다.

11일 오후 언론 시사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수원 감독은 "언제 나라로 떨어질지 모르는 사회를 그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화는 병원 VIP 병실에서 일하게 된 '헤림'(서영희)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직 돈을 위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생명을 10년 동안 억지로 연장하는 아들 '상우'(김영민)는 상태가 나빠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심장 이식자를 찾는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뇌사상태에 빠져 버려진 '미나'(권소현)를 찾아낸 상우는 병원 소유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헤림에게 미나의 가족을 찾아 장기 기증 동의를 받아오라고 명령한다. 헤림은 미나 주변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과거에 관해 알게 된다.

신수원 감독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 시나리오를 쓸 때 손끝에 느낌이 오는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돈나'는 다음달 2일 개봉한다.

## '복권 중독 200만?'... '뺨튀기' 의혹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유병률 높게 나오는 옛 방식 척도 사용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약 200만명은 도박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뜻 무시무시해보이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적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4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사감위는 지난해 10월 복권 발매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복권 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10.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복권 이용자가 2000만명으로 추산되므로 복권 도박중독 위험군이 200만명이나 된다는 '엄청난' 결론이 도출된다.

사감위가 기관의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기관에서조차 일부 한계를 인정한 옛 방식의 조사척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캐나다인 문제 도박 지수'(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 가운데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척도가 '옛날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감위의 측정방식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 수치가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2014년 10월 PGSI 척도를 사용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4%(문제성 1.5%, 중위험 3.9%)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CPGI 자체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그 가운데 PGSI 척도만큼은 공신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다"며 "결국 CPGI의 개발기관인 CCGR(Candian Consortium for Gambling Research)이 2010년 PGSI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CCGR은 옛 버전의 PGSI가 문제가 많은 고위험군을 색출하는 데는 공신력이 있으나,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는데는 일부 통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중위험군의 측정기준을 기존 '3-7점'에서 '5-7점'으로 최저선을 2점 더 올리고, 평가척도도 기존 3단계에서 4-5단계로 더 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수정된 PGSI를 이용할 경우 유병률 통계에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비율이 이전보

다 낮아진다. 그러나 사감위는 여전히 중위험 척도가 '3-7점'인 구 버전의 PGSI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 수치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연구 결과에서는 '도박 중독 0.8%·문제 도박 3%'로 나왔고, 같은 해 고려대학교의 연구 보고에서는 각각 '0.9%·1.2%'로 조사됐다.

또 사감위가 2012년 내부적으로 조사만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형 도박행 동척도'의 조사 결과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 도박과 그 다음 위험 수준을 합쳐 2%선으로 알려져 있다. 사감위가 공식 발표한 2014년 유병률 5.4%은 이를 조사보다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을 과장한다는 의혹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사감위는 앞서 2012년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이 7.2%에 달하며 특히 남성은 10.6%, 사행산업 이용자는 41%에 이른다는 CPGI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소재 한 대학의 교수가 2013년 9월 당시 "사감위가 실제보다 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었다. 사감위는 당시에도 해명 보도자료를 내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 "산출방법과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 단속에는 '실질' 손을 놓은 채, 대신 '생색내기' 식의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의료·건강

대구광역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13



마늘의 효능, 뇌세포 손상 억제 항바이러스 기능까지



마늘의 효능에 어떤 것이 있을까?

마늘은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노화와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뇌를 보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늘 효능을 연구한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FruArg'로 알려진 마늘에서 파생한 탄수화물에 조정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영양소가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뇌 세포 손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역전시키기도 한다.

환경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과 흡연, 공해, 외상성 뇌손상, 과도한 음주 등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환경 스트레스가 있을 때 뇌세포 작용의 부산물로 일산화질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마늘에서 추출한 FruArg를 투여하면 일산화질소 양이 줄어들면서 면역세포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영수 기자

물티슈 1장으로 여러 곳 닦으면 세균 퍼질 수 있다



메르스 공포로 물티슈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물티슈가 세균을 오히려 확산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병원과 가정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가 오히려 세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NHS) 소속 병원들에서 사용되는 물티슈 7종을 가지고 3개의 장소를 연속으로 닦은 후 슈퍼버그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클로스트리듐 디피실(C.difficile)균을 비롯한 가장 흔한 병원 내 감염균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세균 포자들이 모두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진은 "7종의 물티슈가 한 곳에서 다른 표면으로 감염을 확산시켰다"면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티슈도 세균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화장실 경우 세면대와 변기를 물티슈 한 장으로 닦으면 세균을 확산시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허릿살 빼는데 좋은 체조 노력하면 '개미허리' 가능

허릿살 빼는데 좋은 체조가 화제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허릿살 빼는데 좋은 체조'가 소개돼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허릿살을 빼기 위해서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빼내려 다리에 세운 후 상체를 뒤로 돌리면 된다.

이 동작의 포인트는 호흡 조절. 숨을 들이 마신 뒤 동작을 취하고 내쉬면서 돌아온다. 또한, 두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상체를 왼쪽으로 틀면서 두 손을 멀리 뻗어서 크게 원을 그리며 발에 닿도록 몸을 숙이는 자세도 허릿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 올바르게 손씻는 법, 이것만 지켜도 메르스 막는다

메르스는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 정도 잠복기를 갖는다. 감염된 환자는 주로 38°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객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증상의 경우 성인에게는 거의 없거나 열이 나더라도 미열에 그치곤 한다. 또 메스꺼움과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자 올바르게 손씻는 법이 이목을 끌고 있다. 메르스를 예방 및 대처하는 방법에는 먼저 손을 자주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다. 올바르게 손씻는 법은 먼저 양손의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이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준다. 그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준 뒤 엄지손가락을 다른쪽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는다. 열이나 기침이 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번째로 고령,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끝으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 120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남명성 기자



# 메르스... 대구 대형병원 환자 '발길 뚝'

대구의료원, 메르스 사태 평소 환자수 50% 줄었다



대구 시내 대형병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를 피해갈 수 없었다.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대구이지만 시내 대형 종합병원은 발길을 끊은 외래환자 탓에 썰렁하기만 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대구의료원이었다. 국가 지정 격리병원인 대구의료원은 메르스 사태 초반 외부 의심환자를 수용해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외래 환자가 등을 돌렸다.

지난 11일 오후. 평소라면 외래환자와 병문안을 온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이지만, 의료원 로비는 물론 주변에 위치한 약국과 편의점마저도 외부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자가 빠진 곳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만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응급환자들로 넘쳐났던 응급실 또한 곳곳에 빈 침대가 눈에 띈 정도였다.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평소 환자 수의 50%가 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외래환자가 급격히 떨어졌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김모(47)씨는 "메르

스 환자가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안심해도 된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듣고 남기로 했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쳤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가 발생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절반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주 대구시의 담화문 발표 이후 점차 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평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줄어든 환자로 한산한 것은 경북대병원, 영

남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등 나머지 대형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병원에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해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외래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경북대병원도 전반적으로 한적한 가운데 마스크를 올려 쓴 병원관계자들이 많이 보이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3400명 정도의 환자가 외래 진료를 했지만, 메르스 발병 이후 28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소 대비 20% 가량 환자가 줄어든 셈이다. 원무과의 한 직원은 "평소 같은 시간대에는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대기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지만 메르스 이후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3살 난 아이가 아파서 입원 중이라는 전모(33·여)씨는 "대구는 메르스 청정지역이라 해서 안심했는데, 사망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빨리 퇴원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더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영남대병원 역시 스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150여개의 대기 의자는 누워 자도 될 만큼 텅 비어있었다. 설치된 무인수납기 6대 가운데 2대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전원을 꺼뒀다. 영남대병원은 하루 평균 1만6000여명 정도의 외래 환자가 병원을 찾았는데, 메르스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5월 말에는 1만4000여명, 지난주에는 1만3000여명 수준으로 계속 해서 줄고 있다. 이경자 외래팀장은 "메르스 이후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 체감 상으로는 20~30% 이상 줄어든 것 같다. 진료 예약을 해놓고도 3~4% 가량은 메르스가 잠잠해진 뒤에 다시 오겠다며 취소하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 라섹 부작용 없이 수술하고 싶다면?

계절은 라식, 라섹 상관無

이제 곧 직장인들은 휴가,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지만 휴가기간을 이용해 라식, 라섹과 같은 미용수술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시력교정술을 하는 안과는 라식, 라섹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수술을 하려면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는 많은데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여름철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앞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여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여름에도 수술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날씨가 더우니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앞서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식, 라섹은 기본적으로 계절과는 무관한 수술이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대표 원장은 "잘못된 숙실에 지레 겁을 먹고 여름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다만 시력교정술을 받은 후에는 한동안 자외선 차단술 70% 이상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규경민 기자

## 말 못할 괴로움 다한증... 괴로워요

다한증 단순한 신체증상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될수도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흔히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간단한 질환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다한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호소에 따르면 다한증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발생하는 땀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리적인 요구량 이외의 과도한 땀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 하며 이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흘리는 땀의 양과 상관 없이 그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고운결한의원 임상심리학 박사 김윤희 원장은 "원론적으로는 손이나 발, 겨드랑이 등에 생리적인 요구량보다 과도한 땀이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다한증이라고 정의하지만, 환자 본인이나 느끼는 자각증세와 불편감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혹은 치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지가 결정되는 미묘한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최유희 기자



다한증 치료에 대한 폭넓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운결한의원은 최근 다한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증세의 경중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테스트 매뉴얼을 개발해 대한한방내과학회에 발표했다. 김윤희 원장은 "다한증이 신체적 증상 뿐 아닌 정서적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복합 질환임에도 그간 다한증에 대한 과학적 역할조사와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운결한의원의 독자적인 설문과 'Hyperhidrosis-Tissue test(H-T test)' 등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증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 손톱으로 쉽게 보는 건강법

검은 줄 생기면 피부암

유발 흑색종일 수도...



당신의 손톱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손톱으로 보는 건강 이상징후가 화제다. 미국의 미용·패션 사이트 데일리 메이크오버가 뉴욕 피부과 전문의 제시카 크랜트 박사의 조언을 빌어 손톱을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확인 사항을 공개했다.

■검은 줄이 생긴다=손톱의 검은 줄은 대부분의 경우 색소 침착으로 생기지만, 제시카 크랜트 박사에 따르면 드물게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손톱의 큐티클에서 탐까지 검은 줄이 생긴 경우 이는 피부 암을 유발하는 손톱 흑색종일 수 있으며 진한 회색이나 녹색이라면 무좀일 가능성이 있다.

■푸르스름하거나 하얘진다=손톱이 푸르스름하게 되는 것은 산소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추울 때 일시적으로 푸르게 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손톱으로 보는 건강 신호로서 이는 폐와 심장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손톱이 하얘진다면 간 관련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크랜트 박사는 전했다.

■휘어진다=일반적으로 손톱은 손가락 등 부분처럼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하지만 그 반대의 모양으로 함몰된다면 손톱으로 보는 건강 신호로서 철 결핍성 빈혈을 의심할 수 있다. ■얇아져 잘 부러진다=손톱은 본래 단단하지만 건조하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약해진다. 이와 동시에 체중이 감소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잘 끊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크랜트 박사는 말했다. ■새로 줄무늬가 생긴다=나이가 들면서 손톱에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질병이 아니라 손톱의 큐티클을 밀 뿌리가 되는 네일 매트릭스가 건조해져 발생한다.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주면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구선영 기자

## 사각턱, 광대축소술 개별 맞춤 파악 중요

사전3D-CT 진단 필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 치는 이연희(여·27세)씨는 요즘 사각턱과 광대축소술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성격은 여성스러운 연희씨지만, 사각턱과 광대뼈가 도드라졌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드세 보인다'는 이야기를 스트레스 받을 만큼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모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어 온 연희씨는 TV속 연예인처럼 V라인 턱선과 매끄러운 윤곽으로 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에 윤곽마사지기구 사용 및 얼굴 축소 마사지를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수술을 고민하게 된 이유다. 이와 관련 더러안성형외과 정유석 원장은

"모든 성형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특히 그 부위가 광대, 턱 등의 안면윤곽이라 면 안전성과 회복기간을 두고 더욱 고심하게 된다"면서 "최근 안면윤곽수술은 첨단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바리와 미세 절개로 안전성을 높이고, 회복기간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편이다"고 전했다. 3D사각턱축소술의 경우, 첨단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만큼 단순한 뼈 절제뿐 아니라 피질절골술, 근육 및 지방제거술 등을 통해 매끄러운 턱라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조직손상과 출혈을 최대한 줄여 수술의 안전성을 높였다. 더불어, 귀밑부터 턱끝까지 한번에 잘라내는 방식의 긴곡선절제술로 45도, 90도 측면에서 봐도 가름하고 매끄러운 턱선을 연출할 수 있다. 이원우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1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개최되는 '제2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  
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5일 오후  
영주시 소재 우박 피해농가 및  
가뭄현장을 확인하고 우박피  
해 복구와 가뭄극복을 위해 신  
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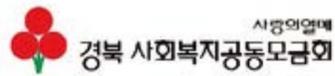
# 경북지역 학교, 난치병돕기 '후끈'

### 포항·구미·경산지역 학교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 참여 뜨거워... 학교 앞장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에 포항과 구미, 경산지역의 학교들의 참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시작된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은 매년 도내 1700여곳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6만여명이 참여, 도내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를 모으는 나눔캠페인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총 모금액



은 19억2200여만원으로, 포항시가 3억 8200여만원으로 전체의 19%, 구미시가 3억 6400여만원으로 전체의 18%, 경산시가 1억 7900여만원으로 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년간 경북 23개 시·군 중 역대위의 모금액을 기록한 곳은 포항시와 구미시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한 상위 3개 학교는 2012년 경산 옥곡초등학교(605만원), 구미 상모초등학교(475만원), 경산 정평초등학교(439만원), 2013년 구미 옥계동부초등학교(590만원), 경산 옥곡초등학교(570만원), 포항 대흥초등학교(543만원), 2014년 구미 금오초등학교(906만원), 구미 옥계동부초

등학교(785만원), 포항 양덕초등학교(543만원) 순으로 모두 포항·구미·경산지역의 학교들이 모범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2015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

14일 기준 모금액이 모금 목표액 7억 5,000만원 대비 80% 수준인 6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돼, 남은 기간동안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성금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아동·청소년 350명의 치료비로 전액 지원된다. 난치병 학생돕기 캠페인 관련 문의 및 참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전화 053-980-7812)으로 하면 되며, 난치병학생돕기 계좌(농협 759-17-002502(예금주: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한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이원우 기자

#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에 적극 동참

### 영양군 입암면 이장협의회 태극기 꽃이대 제작·보급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 미래 70년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써, 정부에서는 지난 3·1절 때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기념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길을 되돌아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선양하기 위해 '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추진한다.

지난 3·1절 태극기 게양 운동을 추진할 당시, 입암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종건)에서 입암면에 거주하는 800여 세대에 태극기(340만 원 상당)를 기증한 바가 있다. 하지만, 김종건 이장협의회장은 이때 기증한 태극기가 기성품에 포함돼 있던 태극기 꽃이대의 길이가 짧고 견고하지 못해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쉽게 빠져 날아가 소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 고민을 하던 중,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추 지주대를 보고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고추 지주대 중간에 나사를 박은 후 태극기를 고추 지주대에 꽃으면 태극기가 꽃힌 깊이가 깊기 때문에 날아갈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이장협의회는 입암면 전 세대에 고추 지주대를 활용한 태극기 꽃이대를 제작·배부, '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 지난 12일에 입암면 전 세대에 고추 지주대 1200개(6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더 나아가 김종건 회장은 신규1리 전 세대

권영동 기자

# 전 공무원 참여 참의들판 대청결 운동 앞장

### 성주군 용암면·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 참여 지속적 추진

성주군은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클린성주 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암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암지역이 선도적으로 청결한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전 공무원이 앞장서 대대적인 활동을 개시, 15일 참여비밀하우스 주변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쓰레기 줍기 및 마을 도로 및 하우스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농자재를 정리하고 근처 농가를 찾아 클린성주의 취지를 설명하며 함께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 주변은 스스로 치우자는 의식이 저변에 확산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활동으로 군민의 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성주만들기를 위한 군민의 동참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일손이 부족한 양파농가에 30여명의 용암면·농업기술센터 직원이 500여명 양파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롯데 고사리꺾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많은 원동지원을 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행정지원 및 영농지도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성 기자

# 한번 소방관은 영원한 소방관

### 전직 소방관 권무현씨 음식점 화재 발생하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피해 최소화 시켜 화제

지난 12일 밤 10시경 안동시 서후면 명리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피해를 최소화 시킨 전직 소방관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인 권무현(61)씨는 안동 출신으로 1977년 소방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경북소방학교 서무계장, 안동·문경·영주소방서 소방 및 방호구조과장, 경북소방본부 예방홍보담당, 울진소방서장, 영주소방서장을 역임했다.

이날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음식점 주방 옆 벽면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지인 송재영(안동육동 의용소방대원, 50)씨와 함께 맨발로 뛰어나가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했다.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도 직접 관창을 잡고 소방관과 함께 건물의 연소 확대저지와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현역시절에 못지 않은 화재진압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규수 안동소방서장은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며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대형화재를 막은 선배님에게 소방서 전 직원의 뜻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가 난 음식점은 목재로 지어져 조금만 늦었어도 큰 피해가 날 뻔했었던 상황이었으며 화재원인은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숯을 주방 옆에 쌓아둔 숯에 남은 불씨가 건물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구 기자



# 영주시, 소비취약계층 기만상술 피해예방 교육

### 어르신 대상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수요조사 실시

영주시는 소비취약계층인 어르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뽕다방(홍보관) 상술, 보이스피싱, 상조서비스 피해 등 기만상술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소비자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교육은 어르신 전담 소비자교육강사인 실버서포터즈들이 경로당을 순회, 실시하

며,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대처요령을 제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인층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저가관광, 뽕다방(홍보관), 무료시음, 만병통치약,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사례와 청약철회권, 피해구제절차, 소비자상담기관 안내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방법 교육으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기 기자

### 달성 현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펼쳐

달성군 현풍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황태용·방분화)는 소외받고 있는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월 한달간 현풍면 대리 등 5개 마을의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인 박상이(82) 할머니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업무

도 내지 못했던 싱크대 수리와 도배·장판 교체 등을 해줘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황태용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뜻깊은 봉사에 임해주 감사하다"며 "현풍면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현풍면 새마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풍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2005년부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총 56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지붕보수, 주방 시설 교체 등을 했다.

김영식 기자

# (주)지엘건설,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3천만원 쾌척

### 상주 지역사회 고마움 보답

(주)지엘건설(대구시 수성구) 안준환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재)상주시장학회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안준환 대표이사는 "상주시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상주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이정백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여러 기업체에서 장학기금을 기탁해 줘 감사드리며, 기탁한 장학금은 상주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지엘건설은 2007년 창립이후 개발,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역량을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



2008년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상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한편 (재)상주시장학회는 장학기금 200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 상주사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상주시청 총무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오재영 기자

# 의성군 마을기업 3곳, 최종심사 통과 '쾌거'

### 여울문화예술힐링체험마을 푸루른지렁이마을 태양마을영농조합법인

의성군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응모한 여울문화예술힐링체험마을(신규), 푸루른지렁이마을(재지정), 태양마을영농조합법인(재지정)이 모두 지난 11일 최종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여울문화예술힐링마을(단촌면 방하리)은 체험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에 좋은 평을 받았고, 푸루른지렁이마을(비안면 현산리)은 지렁이 사육을 통한 생활 폐기물 처리 및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태양마을영농조합법인(안계면 양곡리)은 공동농장(종면적 3200평)을 지역주민 품앗이 농장으로 운영해 마을 어르신에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여울문화예술힐링마

을에는 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 설비 등 사업비 보조로 5000만원이 지원되며 2차년도 재심사를 통해 지정된 푸루른지렁이마을, 태양마을영농조합법인은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의성군은 이들 마을기업이 주민이 주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6개가 운영중이다.

또한 의성군은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동아리(2개팀 29명)를 구성, 상시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단위 기초조사사업 시작으로 설명회, 아카데미, 컨설팅을 통해 마을기업을 집중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오늘... 생각한다

## ■ 광역 칼럼

### 대왕암에서 생각해 본 '문무왕 리더십'



이종각  
중앙대 교수

경주시 감포 앞 바다에 있는 대왕암을 오랜만에 찾았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이 죽자(681년) 유언에 따라 화장 후 "신하들이 동해어구의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으며,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문무왕께서 왜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 절 '감은사'를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해룡(海龍)이 되었고, 그 아드님인신 신문왕께서 즉위하시어 공사를 마쳤다(682년)"는 기록이 있다. 이 '대왕암 스토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온 몸을 던져 국난을 극복해 나갔다는 지도자상이다.

문무왕이 사후 '호국해룡'이 되겠다고 한 것은, 달리 말하면 왜의 침략이 그만쯤 우심(尤甚)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왜의 신라 침략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만 해도 총 35회, 수도인 경주까지 쳐들어온 온 경우만 해도 9회에 이른다. 그때 마다 신라는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왜의 침략은 단 한 번뿐이다. 살아서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 삼국통일을 완수하고, 죽어서는 해룡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현신적

인 애국(愛國), 애민(愛民) 리더십이 일구어낸 결과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북한은 지난 5월초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날렸다. 북한이 날린 SLBM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보다는,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 발사장면은 북한이 미군의 발사 영상을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핵무기개발은 물론, 시험단계라지만 SLBM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체제 불안정의 북한이 예측불능의 대남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SLBM 발사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국민이다. 일반에겐 명칭조차 생소한 SLBM이란 무기를, 북한이 개발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겠다', '북한이 바다 밑에 들어가 쏘면 다 맞겠네'라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잠수함, 해군기지가 어디에 있는 다 추적할 수 있고 사전대응할 수 있다"고, 호연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논의나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이를 실천배치할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한반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와 반대로 북한의 SLBM 발사가 오히려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셈이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매년 수많은 아사자를 내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세계의 발생꾸러기, 조종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도 전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해군기지(제주 강정마을)건설 반대로 온갖 소동을 피웠다. 북한이나, 중국 등이 핵개발을 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것은 저들의 자주국방, 내정문제이니까 이해해 줘야 하고, 우리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 말인가? 거기에는 어느 해군참모총장은 재직 중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한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 거액의 뇌물을 받고 쇠고랑을 차는 등 방산비리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다. 세월호참사 이후엔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엔 메르스 내습으로 나라전체가 흉흉하다.

나라밖으로도 일본은 아베정권 출범 후 군사대국화, 우경화노선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슈퍼 차이나'가 된 중국은 아시아지역 헤게모니 쟁탈전에 나서 미국, 일본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나라 안팎이 매우 어지럽다. 문무왕처럼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다. 여야, 계파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어 대내외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여름철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절기 위해 식품 일제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식중독은 전국적으로 매년 8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요즘처럼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날에는 더 그렇다. 주로 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집단급식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식중독 환자 중 70%가 학교급식에서 비롯됐다는 통계는 선진국을 자랑하고 있다는 우리사회를 부끄럽게 만든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원인의 60%에 가깝게 식재료 관리소홀과 생산 단계에서의 정결문제였다. 통계지표를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보건당국의 지도점검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급식 담당자들부터 위생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본격적인 무더위로 이어지는 시기는 위생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면 음식물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습도가 높은 후덥지근한 날씨엔 전염병이나 식중독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식중독균은 대체로 열에 약하고 저온에서 잘 번식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 보관하되 저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김밥, 도시락 등은 1회 분만 준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사고는 위생관리만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5°C이하 냉장 또는 60°C 이상 온장 보관하면 별 탈이 없다. 균이 번식하기 쉬운 칼, 도마, 행주 등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행주는 수시로 삶아 말려 써야 한다. 올 더위가 아직도 함참 남았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위생관념도 한 차원 높아져야 하겠다.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기본만 지키면 식중독도 없다. 메르스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 집단식중독까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기 바란다.

## WHO 충고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지연해 메르스 확산을 불려왔다고 평가하면서 메르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외에서 더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산발적 메르스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간 선진화했다고 자부해온 한국의 의료체계에 한국형 병원 문화를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

합동평가단은 지난13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정보공개 지연을 꼽았다. 이종구 합동평가단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늦은 것이(메르스 관리의) 실패 원인"이라며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질병의 확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통이 화근을 만든 셈이다. 후쿠다 게이치 WHO 사무차장은 "어떤 국가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깜짝 놀라고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초동대응 이후에 대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사쇼핑(Doctor Shopping)' 관행을 지적한 대목에선 얼굴이 부끄럽다.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일등공신이었던 것이다. 대수롭잖은 병인데도 대구의 대형병원을 놔두고 서울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찾아가는 원정의료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지탄받을 일이다. 여러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라 병원에 문병하는 문화는 어떤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병문안이 필요하면 전화로 하면 될 일이다. 서울에 입원한 환자를 보러 대구와 경북에서 올라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병실에서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도 당연한 지적이었다. 특히 응급실은 어느 병원을 막론하고 시장판이다. 여러 환자가 한 병실에 들어 있는 다인병실은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공금처나 다름없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정부가 말한 것과 일일이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평가단의 충고를 받아들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감염 전문가, 역학조사 전문가 등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 실험실 및 음압병실 확대 등 시설 투자에도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도 흘려들여선 안 된다.

## ■ 윤신근의 애완동물 이야기

### 원숭이, 기르기 쉬워요... 뜻밖에도 <54>



윤신근  
수의사

동물원에서 어린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바로 원숭이이다.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로 갖가지 재롱을 부리는 원숭이는 재치와 생김새로 동물원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사람들의 입장에선 마치 자신들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생길 정도이다. 원숭이는 유인원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과 비슷한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 애완 동물로 기르는 종류는 일본원숭이가 가장 보편화돼 있다. 여우원숭이, 안경원숭이, 다람쥐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희말라얀 원숭이 등도 더러 눈에 띈다. 예전에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원숭이들이 요즘에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바로 원숭이

이도 애완 동물 대열에 끼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흡사한 이들을 보며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자기에의 반성까지 한다. 요즘 들어 원숭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기 위한 갖가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숭이들을 수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확정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원숭이들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들은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정'은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된다. 어미 원숭이들은 새끼가 죽게 되면 죽은 새끼를 차마 떨치지 못한 채 함께 안고 다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원숭이들은 자신의 몸을 다듬는 털손질에 무척 관심이 많다. 두 마리의 원숭이를 사육하면 어김없이 서로 어울려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털을 손질한다. 털을 손질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하는 듯하다. 이때 사랑의 감정도 느낀다. 이 녀석들에게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수단으로 털손질이 무척 필요한 것이다. 털손질을 할 때 이 녀석들은 피부 속에 살아 있는 이 같은 기생충을 잡아 준다.

원숭이 새끼들은 다른 동물의 새끼들보다 훨씬 장난이 심하다. 씨름이나 달리기, 재주넘기 등은 기본이고 나무 위에 오를 때에도 장난을 쳐 상대방을 떨어뜨린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때로는 장난이 너무 심해 싸우기도 한다. 그러면 어미 원숭이는 소리를 질러서 그 싸움을 말린다.

원숭이들은 잡식성이다. 일반적으로 나뭇잎과 과일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 등도 먹는다. 하지만 식성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양태도 달라진다.

곤충을 먹는 녀석들은 주로 밤에만 활동한다. 이에 비해 나뭇잎이나 열매 등 식물성을 먹는 원숭이들은 환한 낮에 활동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육하는 원숭이들은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그래서 애완용 원숭이들에게 애완 동물용 사료와 과일 등을 주면 잘 먹는다. 한 마디로 키우기가 쉽다는 뜻이다.

이도 애완 동물 대열에 끼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흡사한 이들을 보며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자기에의 반성까지 한다. 요즘 들어 원숭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기 위한 갖가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숭이들을 수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확정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원숭이들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들은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정'은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된다. 어미 원숭이들은 새끼가 죽게 되면 죽은 새끼를 차마 떨치지 못한 채 함께 안고 다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원숭이들은 자신의 몸을 다듬는 털손질에 무척 관심이 많다. 두 마리의 원숭이를 사육하면 어김없이 서로 어울려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털을 손질한다. 털을 손질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하는 듯하다. 이때 사랑의 감정도 느낀다. 이 녀석들에게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수단으로 털손질이 무척 필요한 것이다. 털손질을 할 때 이 녀석들은 피부 속에 살아 있는 이 같은 기생충을 잡아 준다.

원숭이 새끼들은 다른 동물의 새끼들보다 훨씬 장난이 심하다. 씨름이나 달리기, 재주넘기 등은 기본이고 나무 위에 오를 때에도 장난을 쳐 상대방을 떨어뜨린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때로는 장난이 너무 심해 싸우기도 한다. 그러면 어미 원숭이는 소리를 질러서 그 싸움을 말린다.

원숭이들은 잡식성이다. 일반적으로 나뭇잎과 과일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 등도 먹는다. 하지만 식성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양태도 달라진다.

곤충을 먹는 녀석들은 주로 밤에만 활동한다. 이에 비해 나뭇잎이나 열매 등 식물성을 먹는 원숭이들은 환한 낮에 활동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육하는 원숭이들은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그래서 애완용 원숭이들에게 애완 동물용 사료와 과일 등을 주면 잘 먹는다. 한 마디로 키우기가 쉽다는 뜻이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신문이 아니라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메르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메르스 신고전화

- 지역번호 +120
- 043-719-7777
- 각급 보건소

### 메르스 퇴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메르스 의심자]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꼭 신고 바랍니다.
-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의 상세내용(병원명, 기간) 등은 메르스 홈페이지(www.mers.go.kr)에서 확인 가능
-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가지기 전에 우선 신고해 인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요원의 질문에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성실하게 답해주십시오.

### [자가격리자] 외부활동을 금지해 주십시오

- 증상이 없어도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생활용품 등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메르스 신고전화로 연락하고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릅니다.

☞ 자가격리는 최대 14일입니다

- 여러분의 협조가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격리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일반 예방수칙]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십시오

-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발열·기침이 심한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 병원인은 자재해 주십시오.
- 병원을 방문할 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평소와 같이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